

힐링 노원

2021

7

제 402호

발행일 2021년 6월 25일 발행인 노원구청장 오승록 편집인 미디어홍보담당관 1(우01689)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4F www.nowon.kr facebook.com/goodnowon

빛나는 초록 숲, 우거진 그늘 아래
숨 고르는 이 시간이 참 좋다
심 없는 일상의 반복 속에서
잠시 나를 다독거리는 힐링 타임
이제 다시 걸어볼까
노원의 길은 가볍고 마음마저 질푸르다



모바일 소식지

표지이야기

불암산 힐링타운 무장애 숲길(6월 13일)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한 2.1km 무장애 순환산책로에서 건강한 쉼을 즐기고 있는 구민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최근에 새로 조성한 무장애 전망대, 정원지원센터, 유아숲체험장까지 두루 체험할 수 있다.

2~5 노원지금 7 구의회 6,8~9 힐링·문화 10~16 건강복지·교육·소통

자연과 문화 속으로! 힐링도시 노원

자연에 휴식을 더하는 **힐링도시**
섬프가 있는 **문화도시**
나눔이 있는 따뜻한 **건강복지도시**

미래를 향한 젊은 **교육도시**
더 빠르고 더 편리한 **교통도시**
일자리로 활력넘치는 **혁신도시**



*사진: 이창룡

음악과 분수와 조명의 환상적인 콜라보 타임 다시 즐길 준비 되셨나요! 위로와 설렘의 **당현천 음악분수 쇼**가 시작된다

첫 쇼는 7월 1일(목) 저녁 8시 30분, 당현천 수목문화관 앞
성서대 앞 바닥분수와 함께 6월부터 낮에도 가동 중, 마스크와 거리두기는 필수

장관을 이루던 빛꽃이 지고 꽃양귀비와 금계국이 절정의 빛깔로 푸른 시냇가에 가득 피어난 여름을 건넌다. 당현1교와 당현3교 사이에 새로 등장한 업사이클링 포토존은 소품이 꽃 폭포 특화화단의 화려한 꽃들 속에서 사진 찍는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다. 당현천 전 구간에 씨를 뿌려 꽃을 피운 꽃양귀비의 고혹적인 자태가 사들여 갈 즈음에도 소소하게 피어난 금계국은 오래도록 시냇가를 은은하게 빛내고 있다. 계절 따라 다양한 느낌을 즐기며 일상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충전할 수 있는 이만한 산책로가 또 어디 있을까 싶게 마스크를 쓴 산책러들의 여유로운 행렬은 내내 이어진다. 쉽터에 잠시 앉아 물오리들의 자맥질과 상류까지 올라온 잉어 떼를 바라보다가 문득 작년 가을의 풍경을 추억한다. 록 밴드 콜드플레이의 대표곡 '비바 라 비다(Viva La Vida)-인생이여 영원하라'의 극적인 전주가 울리며 솟구쳐 오른 분수가 춤을 추기 시작할 때의 두근거림이 아직 생생하다. 경쾌하고 발랄한 걸 그룹 모모랜드의 '배앰(BAMM)', 지구적 스타 BTS의 '다이너마이트', 전설의 그룹 아바가 부르는 '댄싱 퀸' 등 곡이 바뀔 때마다 흥이 올라 들썩이던 지난 가을 음악분수의 추억. 당현천 음악분수가 첫 선을 보인 작년 8월 말부터 등 축제 '달빛산책'을 연 10월 말까지 약 2개월 동안 초저녁 단 15분의 짧지만 강렬한 킬링 쇼 타임이었다. 분수 쇼가 시작되기 30여분 전부터 자리를 잡고 시새워 기다리며 노래마다 절정의 순간에 최

고의 높이로 솟구치는 분수를 향해 터져 나오던 김탄사, 물보라가 끼쳐올 때마다 한화에 들뜨던 아이들의 즐거운 비명, '상어가족'이 나올 때면 모든 세대가 따라 부르며 장단을 맞췄고 싸이의 '챔피언'이 흐를 때는 절로 힐링이 되어 마음마저 순해지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 특히 앙코르 쇼는 없을 까하여 잠시 머뭇대다 다시 산책로로 혹은 집으로 아쉽게 헤어져 가던 구민들의 흥조 댄 모습이 아직 선하다. 분수 쇼를 즐기는 순간에도 방역수칙을 잘 따르며 안전사고 없이 진행되었고 소음을 감내해 준 인근 거주 주민들의 성숙한 너그러움이 있어 찾해의 음악분수 쇼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구민들의 호응과 기대를 모아 드디어 2021년 올 해도 음악분수 쇼를 연다. 당초 5월부터 시작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기를 거듭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사실 6월부터 음악과 영상없이 물길의 높이와 수압을 최대한 낮춘 상태로 낮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매 시간 20분씩 시험 가동을 하고 있었다. 이제 7월부터는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저녁 20여분간 완성도 높은 음악분수 쇼가 이어진다. 가로 20.5m, 세로 5.5m의 장대한 몸체에 노즐 303개를 장착하고 최대 25m까지 솟구칠 음악분수는 당현천 상계역 북계 산책로 밑, 불암교와 새싹교 사이, 노원 수목문화관 앞에서 열정과 환상의 춤을 춘다. 가장 궁금할 올 해의 음악은 현장의 소리를 수렴하여 작년부터 더 다양한 장르와 흥이 넘치는 노래로 선곡에 선곡을 거듭하고 매회 같은 곡이 아니라 주6일 매일 다른곡을 즐길 수 있도록 분수와와의 찰떡 호흡을 연출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공중에 흩날리는 물보라를 스크린 삼아 흥미를 더해준 영상 또한 구민 참여형의 신선하고 알찬 짝꿍 구성을 선보인다. 공연시간은 저녁 8시를 기준으로 하되 계절별 일몰 시간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20여분 간 가동한다. 한편 성서대

앞의 바닥분수도 안전띠를 설치한 상태로 6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매 시간 정각에 30분 동안 9월까지 운영하는데 바닥분수에는 아이들의 비명소리와 시원한 물소리가 어우러져 신선하고 기분 좋은 활력이 넘쳐난다. 나비정원과 동일로 면허시험장 정류소 앞을 비롯한 각 지역 공원 등 6개소의 바닥분수도 일제히 솟구치며 여름 더위를 씻어 주고 있다. 계절 없는 구민들의 정겨운 건강산책로, 당현천의 잔물결이 꽃과 함께 흘러 음악을 타고 물길로 솟구치며 여름 더위를 끌어안고 자유롭게 역류하는 시간. 이 냇가가 단순히 걷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고 듣고 몸과 마음으로 음미하는 입체적인 힐링의 물보라를 일으킬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새로운 노원 문화의 상징이 된 당현천 음악분수 쇼 타임에 백신접종 구민을 대환영하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소중하게 지키는 구민 여러분을 초대한다. 못 본이는 있어도 한번만 본이는 없다는 바로 그 오감만족의 쇼! 올 해도 당현천 음악분수 쇼와 불빛바닥분수, 공원 등지의 바닥분수를 통해 구민들의 흥과 설렘이 기쁨으로 분출하며 힐링의 일상으로 아름답게 번져가길 기대한다.

*음악분수

개 장 : 7. 1(목) 저녁 8시 30분 / 당현천 수목문화관 앞

쇼 일정 : 7월~10월 매일 저녁

• 7~8월-8시 30분, 9월-8시, 10월-7시

• 1회 20분 공연(매주 월요일 휴장) → 매회 레퍼토리 변경

※오전 11시~오후 7시까지 매시간 정각 20분은 음악과 영상없이 가동

*바닥분수

• 6월~9월까지 당현천 성서대 앞

• 매일 오전 11시~20시까지 매시간 정각 30분 운영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모든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바닥분수(성서대 앞)

(치수과 ☎2116-4183)



건강하게 일하며 행복한 어르신친화도시의 꿈 노원 어르신 행복주식회사 출범

4월 설립등기, 6월 18일 출범식, 주사무실 노원역사거리 KB금융센터

7월부터 공공시설 청소 용역, 아이돌봄 택시 등 5개 분야 최소 40여명 일자리 제공, 12월에는 마스크 제작·판매사업 등 확장

노원에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일자리 주식 회사가 생겼다. 구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고용과 소득보장 구조를 든든히 하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너지를 기대하며 자본금 2억 9천 5백만 원을 출자하여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9월 관련 조례(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제정과 10월 출자동의안에 대한 구의회 승인을 얻었고 KB금융 측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노원역 사거리 KB금융센터 지하1층에 주사무실을 열었으며 대표이사 선임 등 상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 지난 4월 19일 설립등기를 마쳤다. 초기 운영을 위한 마중물 사업비도 확보하였는데 보건복지부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매칭사업비 5억 원, KB 지정기부금 3억 원 등 총 8억 원을 운용하

게 된다. 수행사업은 수익창출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일자리발굴이 가능한 사업으로 민간연계는 물론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기본교육으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7월부터 공공시설 청소용역, 체육시설 위탁운영, 월계동 숲속의 집 위탁운영, 아이돌봄 택시, 지방세고지서 배달 등의 대행 사업을 개시하며 12월부터는 보건용 마스크를 제작·판매하는 수익사업을 위해 작업장 계약과 기계설치 등 작업라인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위와 같은 두 가지 사업방향으로 주식회사 운영의 안정화를 꾀한 다음 사업성과에 따라 사업 규모 및 고용인력 확대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위해 정규 사무인력 3명을 선발하였고 노원구 거주 만 55세 이상 만 70세 이하 최소 40명의 현장인력을 사업단계별로 공개 채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이 현실화 되고 있다. 지난 6월 18일에는 주 사무실이 있는 KB금융센터에서 관내 어르신 및 어르신 일자리 기관 관계자, 내빈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출범식을 가졌다. 본격적인 사업 개시에 앞서 회사 소개와 현판식을 통해 뜻깊은 주식회사 출범을 한 맘으로 축하하고 격려하며 지속적인 협력과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65세 이상 인구가 8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15.2%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 노원에 무엇보다 시급한 어르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자치구 중 세 번째로 출범한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다른 한측인 노원 일자리지원센터, 시니어클럽과 더불어 일하면서 행복한 어르신 친화도시의 꿈을 든든히 이룰 수 있도록 구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당부한다.

(일자리경제과 ☎2116-3491)



노원구 남쪽 관문, 석계역 앞 월계마을 어귀에 새롭게 열린 푸른 심터 석계역 문화공원, 도심의 오아시스 숲으로 돌아오다

헐벗었던 공원이 수목, 화단, 수반 분수연못과 에어바운스가 있는 다목적 운동공간으로 재탄생
우이천 산책로와 연결 통로 설치, 잔디마당이 있는 야외무대로 변신 - 7월 초 개장

월계동의 석계역은 37년 된 사통팔달의 역이다. 전철 1호선을 타고 동두천으로 올라가고 인천과 수원으로 내려 갈 수 있으며 지하철 6호선의 환승역이기도 하다. 성북구의 석(石)관동과 노원구의 월계(溪)동에서 판역명은 노원이 분구되기 전인 1984년, 성북구 시절 신축역에 붙여졌다. 노원과 성북의 경제지역인 석계역 주변은 옛 정취와 신문물이 공존하는 국경마을처럼 노선버스와 택시 등 차량들이 쉴 없이 교차하고 전철을 이용하는 대학생, 직장인, 지역 사람들이 모여 머물다 헤어지기를 반복하며 오래된 상가와 일반주택가와 새로 교체되는 건물들이 뒤섞인 이색적인

느낌의 지역이다. 바로 그 주변이자 노원의 첫 동네인 월계1동의 한쪽 끝, 석계역 1번 출구에서 50여 미터 앞쪽인 석계역 교차로를 건너면 'ㄱ'자 형태의 석계역 문화공원이 있다. 우이천 북계 구간(월계동 47-45번지 일원) 3,900㎡ 면적의 이 공원은 석계역 주변의 유일한 열린 공간이지만 자유로운 쉼과 어울림의 장소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그동안 석계역 문화공원은 수목 등 녹지가 절대 부족한 상태로 광장의 포장 면이 과다하게 드러나 공간이 황량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무대 배치, 조각 작품과 자전거보관대, 조정 시설물 등이 질서 없이 혼재하여 편안하게 쉬고 싶은 공원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를 개선하고자 효율적 공간 재배치 등 획기적인 새 단장을 위한 전문가 자문과 설계, 주민설명회 등 1년 이상의 준비 끝에 올 2월 착공하여 6월 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 우선 풍성한 녹음이 우거진 휴게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형미 있는 플랜터와 큰 나무를 식재하여 아늑한 공간감과 경관을 확보했다. 주요 시설물의 디자인을 통합하고 미아용 시설물

을 철거하는 등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질서 있게 재배치하고 세련미를 살렸다. 무대방향을 조정하고 전면을 멀티 파라솔이 있는 잔디마당 객석으로 개선했으며 우이천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를 공원상부와 연결하는 수직통로를 설치하여 산책과 휴식 공간의 유기적 접근성을 확보했다. 또한, 기존의 정자는 그대로 두고 장식화단과 수반 분수연못을 만들어 볼거리를 더했으며 에어바운스와 스트리트워크아웃 등을 설치한 다목적 운동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여 활력 넘치는 놀거리 공원으로 확장하였다. 이로써 석계역 문화공원은 휴식과 건강과 문화가 흐르는 우거진 도심의 오아시스 숲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지역 주민은 물론 석계역을 왕래하는 많은 이들이 쉼과 약속장소로 선풍 품을 만한 숲이 있는 문화공원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노원구 남쪽 경계마을, 월계 관문에 사계절 푸르고 안전한 건강 쉼터가 7월 초에 열린다.

*석계역 문화공원: 월계동 47-45번지 일원(월계동, 석계역 교차로 건너편)
(푸른도시과 ☎2116-3958)



대출한 책을 집이나 직장 등에서 받아볼 수 있다고?! 「핑동! 책 배달 서비스」 7월부터 시행

노원 구립도서관과 서울 노원지역자활센터가 함께하는 책 읽는 노원, 원하는 대로 도서대출 3번째 프로젝트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어르신, 다자녀 양육자, 결혼이민자 등 대상 6월 말까지 1차 신청

책 속에 길이 있고 책은 말없는 스승이라는 격언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독서의 유용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리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독서의 생활화를 위해 평생 교육 도시 노원은 10개 공공도서관과 25개의 작은도서관, 여러 마을공동체 공간의 북 카페 등을 기반으로 구민들의 독서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그 사업 중의 하나가 '원하는 대로 도서대출서비스'인데 도서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책을 빌려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7월부터 그 세 번째 프로젝트 '핑동! 책 배달 서비스'를 시행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구립도서관 외부의 대출함을 통해 비대면 대출을 시행한 '안심도서대출'과 도서관을 가지 않아도 동네 서점을 통해 신간 또는 미 소장 도서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동네서점 바로대출'에 이은 구민 독서 편의의 프로젝트다. '핑동! 책 배달 서비스'는 도서관으로 직접 책을 빌리러 가기 힘든 독서 소외인들을 위해 읽고 싶은 장서들을 무료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대상자는 등록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출산 전후 6개월의 임산부, 미취학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양육자,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 다문화 가족, 한 부모 가족 등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구민들이다. 6월 30일까지 구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신청자를 1차 모집하고 최대 1,500여 명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 대상자들은 월 1회, 회당 최대 7권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올해는 만기인 12월까지 총 5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출 기간은 배송일 포함 최대 21일이며, 반납은 방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노원정보도서관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더불어 반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2년 도부터 관내 공공 도서관 10개소 및 작은 도서관 25개소에 전용 반납함을 설치할 계획이다. '핑동! 책 배달서비스'는 서울노원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배달서비스 일자리 창출도 꾀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구립도서관은 강좌들

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체험 키트를 이용한 힐링 샌드아트와 같은 비대면 강좌를 운영하는 등 도서관과의 끈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핑동! 책 배달 서비스'를 비롯한 '원하는 대로 도서대출 서비스'는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독서 저변 확대와 소외층에 대한 기회 제공이라는 뜻깊은 의미도 있다. "책은 한 권 한 권이 하나의 세계"라는 말처럼 각 구민이 책 서비스를 통해 너는 식견과 지혜를 쌓고 내면을 건강하게 키워 책 속의 세계를 품는 양식 있는 노원인들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한다.

(평생학습과 ☎ 2116-0705)

이용방법(무료)

- ▶택배신청: 노원 구립도서관 홈페이지(nowonlib.kr)
- 택배발송(신청 2~3일 내)
- 독서(배송일 포함 21일)
- 반납(방문서비스 또는 노원정보도서관 직접 반납)





더불어사는 마을 공동주택에 부는 배려의 훈풍 공동주택 경비원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시작



아파트 경비원 기본시설 지원 사업 7월 9일까지 접수, 선정 시 단지별 최대 1,000만원 지원

에어컨 설치 지원 33개 단지 383개소 상반기 중 완료, 경비원 집단해고 문제도 적극 중재→희망자 6명 복직 합의(6.16) 이끌어

구는 경비원을 고용하고 있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원 기본시설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지난 6월 11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다음달 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항목은 경비초소 단열 세시 설치, 양변기 교체, 전기온수기 및 샤워시설 설치 등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공사 등이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주민 동의를 거쳐 신청하면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단지를 선정하며 단지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아파트는 전체 경비인력에 대해 최소 2년간 고용 유지 의무가 부여되는 등 경비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 사업은 최근 사



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열악한 근무환경, 고용불안 등을 해소하려는 구의 실질적인 의지를 담은 것이다. 7월 중 지원이 확정되면 구와 협약을 체결하고 계획에 따라 집행, 정산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구는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상반기 중 33개 단지 383

개소에 1대당 최대 48만 원까지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여 보다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최근 무단 해고 조치로 갈등이 빚어진 중계 그린아파트 상황에 적극 개입하여 협약(6.16)을 통한 원만한 중재로 16명 중 희망자 6명의 복직을 이끌어 내는 등 아파트 민원 해결은 물론 경비원 고용 안정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주택형태의 80%가 아파트인 노원은 다양하고 복잡한 각종 민원으로 바람 잘 날이 없는 데 공동주택 수에 비례하는 경비인력과 그 환경 개선 문제도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양측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 또한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구의 책무다. 아파트 경비원 기본시설 지원 사업의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공동주택지원과 ☎2116-3846)

선명하게 아련하게 밤의 영상 속을 걷는 즐거움

최첨단 영상매체 미디어 글라스 당현천에 여울진다

특화화단을 오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32m 영상아트 백병원과 중계역 사이 당현1교, 7월부터 밤 10시까지

투명 유리 패널 안에 LED칩을 부착하여 전구의 색 변화를 통해 영상 또는 문자를 표출하는 미디어글라스가 당현천에 설치되었다. 상계 백병원과 노원 직십자혈액원을 지나 어린이교통공원과 중계역으로 가는 동일로를 연결하는 다리이자 당현천에 놓인 9개 다리 중 7번째 다리인 당현1교 위다. 구정 홍보 탑이 높이 솟아 있고 아름다운 꽃피 정원으로 당현천 산책길의 명소가 된 특화화단 쪽 난간을 이용해 설치했다. 미디어글라스는 총 35.2㎡ 규모로 높이 1.1m, 가로 32m인데 단절감 없이 영상이 구현되도록 다리 전체 길이만큼 확장해 시공했다. 차량은 물론 주민 이동량이 가장 많은 당현1교의 미디어글라스는 시험운



콘텐츠를 수시로 추가하여 산책길의 환상과 낭만을 더할 예정이다. 32,768픽셀의 고해상도 화질이지만 전력 소모는 적은 최첨단의 당현1교 미디어글라스는 예술작품뿐 아니라 보고 즐길만한 문화, 축제 정보와 재난발생 시 신속한 전파 기능까지 시의성 있게 운용할 예정이다. 화랑대철도공원 불빛정원의 미디어트레인을 감상

용을 거쳐 7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일몰 시간부터 저녁 10시까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힐링 영상과 메시지로 구민들의 산책길에 동행하는데 한여름 밤의 꿈, 몬드리안과 클립트를 만나, 모두가 함께하는 풍요로운 문화 산책, 새로운 소망 등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12개 작품을 기본으로 하고 공익

한 구민이라면 미디어글라스가 낯설지 않을 것이다. 7월이면 당현천 시냇가에도 영상아트가 여울진다. 고요한 저녁 물결위로, 고운 꽃잎과 야생의 수풀 사이로, 산보하는 구민들의 여유롭고 편안한 발걸음 따라 선명하게 아련하게 영화처럼.

(토목과 ☎2116-4158 / 미디어홍보담당관 ☎2116-3406)

처치 곤란한 젤 아이스팩, 이제는 문제없어요

「아이스팩 재활용 수거」 6월 21일부터 시행

19개 동 주민센터와 257개 아파트 단지에 전용 수거함 설치, 주 1회 수거→소독하여 재활용 필요처에 공급

환경오염원인 젤 아이스팩만 넣어주세요, 꼭요!



인터넷 쇼핑이 보편화되면서 택배로 냉장·냉동 제품을 시킬 때 여지없이 떨어 오는 아이스팩. 보통 내용물이 물 또는 젤로 된 아이스팩을 받게 되는데, 몇 개 정도는 생활 속에서 활용을 하지만 정성이 강한 젤은 함부로 버릴 수도 없어 처치 곤란이다.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된다지만 1회용

인 전남 완도·신안군과 함께 아이스팩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노원에서 사용하고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모아 두 지역에 보내주기로 한 것이다. 해산물 많이 나는 완도·신안지역에서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다량의 아이스팩이 꼭 필요했고, 인구가 많은 노원은 인구수 만큼 많이 버려지는 아이스팩의 처리를 고심하던 차에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에 서로 협력하게 되었다. 아이스팩 수거사업은 6월 21일부터 시작되었다. 아파트 단지에 설치한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에 주민들이 아이스팩을 배출하면, 관내 자활기업인 소독업체에서 수거하여 재사용 가능한 것들을 선별하고, 세척과 소독을 완료한 후 전남 완도·신안의 수산물 시장으로 배송하는 절차다.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은 19개 동 주민센터와 공동주택 257개 단지에 총 276개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배출할

때 주민들이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모든 종류의 아이스팩을 수거함에 무분별하게 버려서는 안 된다. 젤 형태의 아이스팩만 배출 가능하며(물, 드라이아이스 형태는 내용물을 비운 후 재활용 쓰레기로 배출) 오염 및 훼손된 아이스팩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거함에 다른 재활용품이나 쓰레기를 같이 버려서도 안 된다. 정성스럽게 모은 아이스팩을 쓰지 못하게 되거나 분리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 수거함에는 반드시 젤 아이스팩만! 처치 곤란한 아이스팩을 손쉽게 배출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필요한 곳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노원의 아이스팩 수거사업은 1석 3조의 아름다운 실천이다. 생활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 변화에 몸소 대응하는 슬기롭고 지각 있는 노원인들의 의지와 참여를 기대한다.

(자원순환과 ☎2116-3827)

으로 쓰고 마는 게 아깝기도 하고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고 흡수성 폴리머(SAP)로 만들어진 젤이 환경 문제를 만든다니 영 찜찜하다. 구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매도시



층층 계단 대신 움직이는 계단 타고 지하철 속으로 상계역 에스컬레이터 6월 9일 개통

1층 대합실에서 2층 개찰구까지 상하행 스크, 3층 승강장까지는 내년 3월 개통
하반기 광운대역 등 3개역 착공 및 당고개역 준공, 내년 상반기엔 6개역 준공

일평균 4만여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4호선 상계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생겼다. 상계역에서 지하철을 타려면 1층 대합실에서 2층 개찰구까지 계단을 걷고 다시 3층 승강장까지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건강한 사람들이야 운동 삼아 오른다지만 이동약자들은 1대 밖에 없는 승강기를 의지해 오르거나 계단을 감수해야 했다. 개통식은 지난 6월 8일에 열렸다. 오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구 및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지역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고 9일부터 정식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먼저 개통한 에스컬레이터는 폭 1.2m 상하행 2대로 계

단 양쪽을 통해 2층까지 연결되는데 15억 원의 공사비가 소요됐다. 2층에서 3층 승강장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폭 0.8m 에스컬레이터 2대도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어 교통약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지하철 이용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승강시설 설치를 지속 추진해 오고 있는데 상계역을 비롯해 하계역, 마들역, 수락산역, 태릉입구역의 에스컬레이터 완공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녹천역 엘리베이터, 광운대역 등 3개역에 승강시설을 착공하며 연말의 당고개역 에스컬레이터 준공을 시작으로 4개역의 승강시설 준공과 화랑대역의 승강기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수락산역 테마역사 조성사업과 노원역 4~7호선 연결통로 환경개선 사업도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구는 구조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70개소

를 제외한 나머지 승강시설에도 빠른 시일 내에 승강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더 빠르고 더 편리한 교통도시 노원의 안전한 교통약자 이동기반이 착착 놓이고 있다.

(교통행정과 ☎2116-4037)

전철역 승강편의시설 확충 현황 - 총 157개소

구분	공사완료(5개소)	공사 중(4개소)	착공 예정(6개소)
에스컬레이터	하계역 3번 출구 마들역 내부 수락산역 4번 출구 태릉입구역 4번 출구 상계역 1층→2층	상계역 2→3층 중계역 6번 출구 당고개역 1→3층	광운대역 내부 2 노원역 9번 출구 공릉역 1번 출구
엘리베이터		노원역 5번 출구	녹천역 4번 출구 화랑대역 3번 출구

전동 킥보드 아무데나 방치, 보도위질주 더 이상 안돼요 슬기로운 Personal Mobility(개인형 이동장치) 사용법

사람우선의 보행환경을 위해 주차 권장구역 지정과 거치대 설치 추진
5월 13일 도로교통법 처벌조항 신설·강화, 서울시 견인조례 7월 시행

최근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급격히 늘고 있는 개인형 또는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이다. 대표적 개인형 이동장치로는 전동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이 있는데 작동이 손쉽고 기동성이 좋으며 공간의 제약이 적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다. 특히 서울시의 따릉이와 마찬가지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의 보급률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런데 그 빠름과 편리함에 비해 이용자의 부주의와 마땅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보행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 도로교통법의 처벌조항이 강화되는 등 보완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서울시내 공유 PM수는 2018년 150여대에서 불과 3년 만에 68,000여대로 증가했고 이와 비례하여 안전사고도 늘어 공식집계가 이루어진 2019년만 해도 134건을 기록했다. 보도 위나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소화기,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앞, 심지어는 차도에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것은 물론 무법자처럼 거침없이 주행하는 PM들로 인해 보행

자와 교통약자에게 공포와 큰 위험이 되고 안전사고까지 유발하는 상황이다. 보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급한 대책의 일환으로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되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 통행이 불가하며 전동 킥보드 등 PM도 자전거 통행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자전거는 속도제한 규정이 없으나 전기자전거와 PM은 시속 25km로 제한하고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 의무화, 만 13세 미만 어린이 이용과 음주·약물·과로·질병 운전 금지, 1인 초과 탑승 금지, 등화장치 미작동에 대한 범칙금 부과 등 처벌 조항을 신설, 강화했다. 공유 PM은 전용주차 공간이 없는 자유거치의 '프리플로팅' 방식이다 보니 무단방치에 따른 보행안전 위험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례도 개정하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5월 20일 개정 공포한 서울시 주·정차위반차량 견인조례에는 사고발생 우려가

큰 6개 구역에 기기방치 시 즉시 견인하고 일반보도에 3시간 이상 방치 시 견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주차단속 시, 무단방치 공유 PM 견인업무를 병행하며 자전거문화팀을 중심으로 보행 환경 개선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가로수, 가로등, 자전거거치대 등 주요 구조물 옆을 주차 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 자전거거치대 겸용의 킥보드 거치대 설치를 추진한다. PM업체와의 협약체결, PM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확대, 단속 강화를 위한 노원경찰서와의 협업 등 질서 있는 PM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사람 우선의 보행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이용자 개개인의 상식적인 질서위반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빠름과 편리함을 빙자한 보도 위의 무한질주와 방치는 이제 그만!

(교통지도과 ☎2116-0631~2)



노원의 아이들은 노원이 보호한다. 전국 어디에도 없는 영유아만을 위한 보호시설 영·유아 전용 학대피해아동 쉼터 7월 개소

시설 임차하여 심리치료실 갖춘 생활보호시설로 조성

0~6세 아동 대상 일시 보호, 임차 및 운영비 구비로 총당, 보육사 및 심리치료사 상주 돌봄

최근 '정인이 사건' 등 끊이지 않고 있는 아동학대 피해사례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많은 수가 학대피해를 입고 있어도 그 사실을 주변에 알릴 수 없는 영·유아이며 학대를 받다 사망에 이르는 빈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로 6세 미만의 영·유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의 2018~2020년 전체 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총 948건으로 이중 12%인 118건이 영·유아 아동학대신고이며 연평균 39건 꼴이다. 영·유아들은 구조되더라도 학대 가해자들로부터 즉시 격리되기가 어렵고 보호조치를 위해서는 돌봄이 수반돼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영·유아 전담 쉼터가 아직 없는 상태다. 학대피해 영·유아의 절반 이상이 원 가정으로 돌아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놓인 영유아의 응급한 분리조치와 안전한 보호를 위해



노원이 나섰다. 만 0세부터 6세 학대피해아동이 머물 수 있는 '영·유아 전용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조성하여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지난해 기준 전국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72곳으로 영·유아만을 위한 쉼터 조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의 피해아동쉼터 4곳 역시 18세 미만 아동쉼터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의 한 곳도 노원에 있다. 이 모든 시설이 아동청소년이 함께 거주하는 형태여서 영·유아만의 맞춤형 보살핌이 어렵고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아동은 부모

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영·유아 전담시설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구는 관내의 폐원한 가정어린이집을 임차해 심리치료실을 갖춘 영·유아 일시보호 생활보호시설로 새 단장 하고 7월부터 위탁 운영에 들어간다. 입소정원은 7명(성별 구분 없음)으로 보육사 4명과 심리치료사 1명이 피해아동보호, 생활지원, 상담, 치료 등을 안전하게 전담하게 된다. 임차료 및 시설 운영비 전액은 구비로 총당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18세 미만 아동쉼터에 이어 영·유아 전용의 쉼터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구직영으로 운영하며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틈새 없이 보호하기 위한 노원의 돌봄에 주민들도 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응원해 주길 기대한다.

(아동청소년과 ☎2116-4446)



공릉동 숲숲사이로 힐링은 흐르고 노원休

노원 유일 산지형 **솔밭근린공원** - 데크 순환산책로 500m, 잔디마당 440m²

푸른 삼각주 **공릉동근린공원** - 물놀이장 468m², 인조잔디구장 463m²

꽃과 정원의 도시 노원, 공원의 재탄생

처음에 이곳은 불암산의 공릉동 쪽 산자락이었다. 과학기술대(당시 산업대) 뒷길이 뚫리고 공릉2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던 2000년에 공원으로 조성되기 전까지는, 동산의 원형을 유지하며 이미 난 길을 따라 산책로를 다지고 정자를 세워 노원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산지형 공원으로 가꿨다. 자생하던 소나무 군락이 있어 이름도 '솔밭공원'이라 하고 인근 주민들의 소중한 산책공간이 된 지 20여년이 흘렀다. 공릉동 111-1번지 솔밭근린공원은 11,459m²(3,472평)으로 노원의 29개 근린공원 중 중간 정도의 규모인데 그 형태와 우거진 천연 생태 숲은 다른 곳에 비할 바 없이 탁월한 공간이다. 마치 아파트 안에 산을 품고 있는 형국이니 말이다. 그사이 흙길이었던 산책로가 비가 오거나 해빙기에 진흙탕으로 변하는 불편을 없애고자 2013년에 땅을 고르고 야자매트를 깔아 정비를 했었다. 계단을 걸어 올라오면 공원 중앙에 정자 하나와 마른 굴터, 산책길이 전부였던 이 솔밭공원이 최근 확 달라졌다. 근린공원 재생사업의 연차 계획에 따라 남은 야자매트 정도를 교체하려 했다가 공원

의 특별함을 살려 불암산이나 영축산 순환산책로와 같은 무장에 생태공원으로 특화하기로 했다. 우선 흙길의 낡은 야자매트를 걷어내고 500m에 달하는 데크 순환산책로와 352m² 흙콘크리트 포장길을 냈다. 자투리 공간을 살려 운동 및 휴게 공간 5곳을 만들고 운동기구 18점, 동의자 18개를 설치했으며 아이들을 위해 인디언집, 흔들 바줄 건너기 등 4종의 자연친화 놀이터로 꾸민 유아숲 체험장도 만들었다. 또한, 공원 중앙의 정자를 조명이 달린 새 모형으로 교체하고 행했던 굴터를 440m²의 굵고 푸른 잔디마당으로 바꿨다. 데크길 44개, 공원 요소에 17기의 등과 CCTV 4곳, 포충기 3곳, 음수전도 1곳에 구비하여 안전하고 운치 있는 산책을 밤낮없이 누릴 수 있도록 보완했다. 남천, 조팝나무, 생강나무, 산철쭉도 심어 숲 생태를 보강하며 6개월여의 공정을 거쳐 지난 3월에 완공하고 4월 29일에 뜻깊은 개장식을 가졌다. 마치 영축산의 축소판 같은 숲숲공원을 이제는 보행약자도 데크길을 따라 사방(화랑타운, 예수사랑교회, 서울여대 후문 길, 경춘선 숲길)에서 안전하고 편하게 오를 수 있으며 나무 그늘을 따라 걷거나 운동하다가 정자와 잔디마당에서 정담도 나누며 우거진 참나무와 소나무 숲 사이로 정갈한 하늘을 우러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솔밭근린공원의 대각선 방향, 화랑대사거리에서 화랑로를 건너면 바로 보이는 공릉동근린공원(공릉동 63-1)도 새롭게 변신했다. 솔밭근린공원과 거의 비슷한 규모의 공릉동근린공원은 주택가와 떨어져 큰 길을 일부러 건너야 하는 외진 곳에 있고 폐쇄적인 구조 탓에

이용률이 극히 적은 곳이었다. 신내택지개발지구의 도시 계획 시설로 1995년에 조성되었는데 미니골프장을 설치하고 공릉동꿈미울 공동체의 축제 등을 개최하며 활용도를 높이려는 시도를 꾸준히 해오던 차였다. 2019년에 물놀이장을 설치하며 생활 속 접근성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재탄생 사업을 통해 획기적으로 공간을 개선했다. 2종의 산책로(코르코, 야자매트 포장)를 운동장의 트랙처럼 공원 전체에 둘러 배치했고 그 안에 다목적 인조잔디구장과 농구대, 운동기구를 설치해 열린 공간을 확장했다. 숙근초 화원, 소나무 화단, 조형물 꽃밭 등을 포인트로 조성하고 물놀이장도 이전보다 44평이나 확장했다. 이전부터 자라던 나무들이 공원의 가장자리에서 빛나는 초록빛으로 우거져 더욱 조화롭고 말끔한 삼각의 공릉동근린공원에서 제법 많은 주민들이 휴식을 즐기고 있는 것을 보니 공원의 변신이 성공적임을 체감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경춘선 숲길과 화랑대철도공원(불빛정원), 태강릉은 물론 각각 특색 있는 산지형과 평지형의 두 공원을 체험해보는 재미를 더하게 되었다. 과연 어떠한지 공원 탐방 길에 나서 보자. 불빛정원은 육사삼거리, 두 공원은 그 아래 화랑대사거리에서 아주 가깝다.

(푸른도시과 ☎2116-3944)

***솔밭근린공원** : 공릉동 111-1
(공릉2동, 화랑타운아파트 내)

***공릉동근린공원** : 공릉동 63-1
(공릉2동, 화랑대사거리-청송아파트 건너편)



솔밭근린공원

공릉동근린공원



노원구의회 제267회 정례회



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는 6월1일 올해 첫 정례회인 제267회 정례회를 개최하여 6월24일까지 24일간 진행된 제267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회기 첫날인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김준성, 임시오, 주희준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으며 이어 제267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노원구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의결했다. 5분 발언을 통해 김준성 의원은 '향토문화재 발굴과 보존 그리고 연구에 대한 관심과 개선 조치 요구', 임시오 의원은 '공릉동 대릉상당 주변 화단 설치 감사 및 노원구 관내 임대아파트 외제차량 관련', 주희준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라는 의견을 통하여 집행부에 건의사항 및 시정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6월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6월11일 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구청장의 답변이 있었고 14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별로 안전심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어 21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먼저 서기팔 의원 위원장으로, 신동원의원, 이미옥의원을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등에 대한 심사를 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기팔 위원장과 신동원 부위원장, 이미옥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강금희, 김태권, 이철근, 임시오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되어 2일간 진행됐다. 6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심사한 각종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 후 정례회를 마무리 했다. 최윤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렵고 고통 받는 이들의 무거운 짐을 들어줄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연구하며 방향을 잡는 것이 의회의 바른 역할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조례 제·개정 등 입법활동을 통해 소임을 다 해 온 것처럼 8대의 회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제267회 정례회에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좀 더 체계적이고 꼼꼼한 감사와 결산심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조례개정을 한 후 첫 감사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준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심사한 안건은 총 28건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강금희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철근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진희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관정화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복지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기팔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이미옥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철근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 10건이 포함돼 있다.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착수보고회



서울 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는 5월10일 노원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과 관련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노원구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단체」는 노원의 지역현황과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노원이 나아가야 할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책 제언을 통해 노원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구성됐다. 연구단체는 손영준 의원을 대표로 이미옥, 변석주, 임시오, 최윤남 의원이 참여해 7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전문성을 갖춘 연구를 위해 (사)한국정책개발학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착수보고회에서 책임연구를 맡은 황종석 교수(한국정책개발학회 감사)는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며, 노원의 지역현황, 민선 1~7기까지의 정책추진현황, 주민의 삶의 질(만족도) 조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정책 사례 등을 분석하여 미래 정책환경 변화 등을 전망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의 방향성 제시와 정책과제 발굴 등의 연구계획을 보고했다. 최윤남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됐는데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정책의 흐름을 되짚어 봐야겠지만, 의회차원에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앞으로 노원의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면 후배들에게도 좋은 참고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준 대표의원은 "현재도 다양한 정책들이 집행되고 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노원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장기적 정책의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의 정책변화를 전망하고 주민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노원만의 정책과 방향성을 제시하여 노원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는 5월11일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임시오 의원, 부위원장에 서기팔, 손영준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지난 제266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방치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관내 유휴 공공용지를 조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활용방안 찾고자 구성됐다. 이번에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세부 활동 계획을 논의하였다. 앞으로 특위는 공유재산 관련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자료를 수집한 후 현장조사와 주민 의견청취,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최적의 활용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임시오 위원장은 "노원구에 활용되고 있지 않은 공유지가 생각보다 많다. 노원의 발전과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활용방안을 찾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으로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0월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위원회 위원으로는 변석주, 안복동, 이영규, 이철근, 이한국 의원으로 구성됐다.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지난 제266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5월12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위'는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이 30%에 육박하는 등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위기대응과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12일 구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첫 회의에서는 이영규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미옥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특위의 활동 방향과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앞으로 특위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관련 부서로부터 업무보고와 함께 청년가게 창업사례자, 청년네트워크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년지원시설 및 타지자체 우수사례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영규 위원장은 "청년실업문제가 청년고독사로 이어지는 등 청년문제가 심각하다"며 "먼저 현재 진행중인 사업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의회차원의 지원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위는 강금희, 변석주, 안복동, 임시오, 차미중 의원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됐으며, 10월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노원구 노인 맞춤형 통합돌봄 정책연구」 착수보고회



서울 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는 5월12일 노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구축과 관련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노원구 노인 맞춤형 통합돌봄 정책연구」의 연구단체는 우선적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과 그 가족의 자립적 생활 지원을 위한 통합돌봄 서비스의 질적 확충과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강금희 의원을 대표로 여운태, 이영규, 주연숙, 차미중 의원이 참여하여 9월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전문성을 갖춘 연구를 위해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연구책임 맡은 윤수찬 교수(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위해 자치구의 지역공동체 활동과 사회적 자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책분석,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우수사례 현장방문 등을 통한 연구계획을 보고했다. 참여의원들은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등 현재 노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분석과 타 지자체와의 비교연구 등을 요청하며 노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도출 등의 연구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강금희 대표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다"며 "양질의 어르신일자리 창출 등 생산적 복지정책과 현실을 반영한 노인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노원시네마 천국

7월

※코로나19로 인해 관람인원을 제한하여 운영 할 예정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시에는 청춘극장 상영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노원청춘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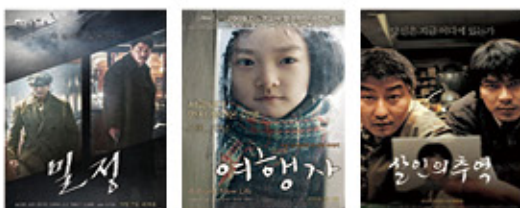
매주 수·목 오후 2시 구청 6층 소강당
(☎2116-3747)



원더풀라디오 15 7.14(수), 15(목) 한국
26년 15 7.21(수), 22(목) 한국
집으로 가는 길 15 7.28(수), 29(목) 한국

월계문화복지센터 청춘극장

매주 수 오후 1:30 월계문화복지센터 지하1층 대강당
(☎070-4241-5107)



밀정 15 7.14(수) 한국
여행자 12 7.21(수) 한국
살인의 추억 15 7.28(수) 한국

공릉2동 청춘극장

매주 월 오후 2시 공릉2동 주민센터 내 지하
(☎2116-2108)



만남의 광장 12 7.12(월) 한국
암살 15 7.19(월) 한국
택시운전사 15 7.26(월) 한국



노원구 구립도서관 NOWON PUBLIC LIBRARY

노원어린이도서관, 전문가와 함께하는 육아 로드맵

일시: 7.7(수)~7.21(수) 10:00~11:30

대상: 영·유아 가정의 양육자

장소: 영상회의 플랫폼 ZOOM

(노원어린이도서관 ☎070-7882-4916)

노원정보도서관 그림과 함께 읽기 '도서관속 미술관'

일시: 7.8~7.29 매주 목요일 오전 10:00~12:00

대상: 성인 30명 장소: 온라인(ZOOM)

강사: 이용규(90일밤의 미술관 저자), 채수한,
백인필(한국자전거나라 아트가이드)

신청: 6.15(화)~6.30(수) 노원구립도서관 홈페이지

(노원정보도서관 ☎950-0025)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립도서관 홈페이지(www.nowonlib.kr) 참고

어르신 청춘극장 운영 안내

운영재개일: 2021. 7. 12(월)부터

관람대상: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및 주민

상영 장소	접수 및 문의	전화번호	관람 인원
노원 청춘극장	매주 금요일 (09:00~18:00) 다음주 상영영화 전화예약접수	노원구청 어르신복지과 ☎2116-3747	65명
공릉2동 청춘극장	당일 선착순 입장 해당기관에 상영문의	공릉2동 주민센터 청춘극장 담당 ☎2116-2108	20명
월계문화 복지센터		☎070-4241-5107	20명

경로당 재개관 안내

재개일자: 7. 5(월)

운영시간: 평일 오후 1시~5시

이용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조편성 격일 사용 및 경로당 내 취사 금지

(어르신복지과 ☎2116-3757)

청춘카페(노원실버·공릉·월계) 운영확대

대상: 어르신 및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가능

내용: 국산차 및 커피류 판매(65세 이상 할인 판매)

운영시간: 오전 10시~오후 7시

(설·추석 연휴 및 정기휴일 휴무)

정기휴일

- 매월 첫째주 월요일(노원실버카페, 공릉청춘카페)
- 매월 둘째주 월요일(월계청춘카페)

안내사항

- 7/5(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한하여 카페 정상 이용 가능
-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식음료 포장만 이용 가능
- 식음료 섭취 전후로 마스크 상시 착용
- 공연 강의 및 영화상영 등은 미 실시
(향후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라 운영 예정)

문의: 노원실버카페 ☎949-3757

공릉청춘카페 ☎949-3006

월계청춘카페 ☎070-4174-7755

(어르신복지과 ☎2116-3752)



홍진호 첼로 리사이틀 <첼로 탄츠>

일시: 7.16(금) 19:30

장소: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출연: 첼리스트 홍진호, 조윤성 트리오 외

티켓: R석 4만원, A석 2만원(8세 이상)

내용: JTBC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밴드'의
우승팀인 호퍼폴라의 멤버 홍진호의 클래식
레퍼토리 리사이틀

예매: 노원문화재단 홈페이지

인터파크티켓 ☎1544-1555



노원문화재단 (www.nowonarts.kr) (☎2289-3400)

※모든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노원어린이극장 기획공연]

동화콘서트 <자라는 자라>

일시: 7.24(토) 14:00, 17:00 / 25(일) 14:00

장소: 노원KT건물 지하층 노원어린이극장

내용: 판소리 수궁가 중 자라별주부의 이야기를

각색, 음악과 영상으로 풀어낸 동화콘서트

티켓: 전석 2만원(3세 이상)

예매: 노원문화재단 홈페이지

인터파크티켓 ☎1544-1555



아시아의 탈(가면)

일시: 6.28(토)~7.18(일)

화~금 14:00~20:00

토~일 12:00~20:00

장소: 경춘선숲길 갤러리

내용: 아시아 18개국의 탈

(가면약 200점 전시)

관람료: 무료



노원구립예술단체 여성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2021. 6. 17.(목) ~ 7. 14.(수) 17시까지

- 모집인원 00명
- 대상 만 25세 ~ 만 55세 이하 여성
- 모집분야 전파트(소프라노, 메조, 알토)
- 연습일 주 2회 정기연습 및 수시연습
(화, 목 오전 10:00~12:30)
※ 수시연습은 공연 및 대회 참여 시 진행
- 자랑받음 문화체육관광부
(cjh@nowonarts.kr)

- 심사방법 자유곡 1곡(대중가요 제외)
독창 및 연창
- 심사위원 학부 시인 2명 지음
- 합격 시 연습시간 2시간 제공
- 심사일시 2021. 7. 20.(화) 10:30
- 심사장소 노원문화예술회관 다목적홀
- 합격자발령 2021. 7. 27.(화)
노원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

※ 심사 및 합격자 발표 일정은 내부 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공연전시부 02-2289-3422

[그린-잇다] 기획특별전

<우리 이제, 친구> 이지는그림책 EXHIBITION

일시: 7.17(토)~8.22(일) 10:00~17:00

장소: 노원문화예술회관 4층 노원아트갤러리

입장: 무료

내용: 2021년 어린이책의 노벨상, 볼로냐 라가차상 코믹스

유아그림책 부문 대상을 수상한 이지는 작가의 그림책전

예약신청: 노원문화재단 홈페이지



여름날의 풍경이 되어

〈사진 윤혜숙 - 소소한 행복(경춘선숲길에서)〉

한순간 맥장구름이 물러와 삼시간에 주위가 어두워지며 장대비가 쏟아지는 여름. 그러다 또 언제 그랬나 싶게 말끔히 개어 비대신 뽕뽕한 별을 쏟아내는 반전의 풍경 속에서 7월의 녹음은 눈부시게 질풍니다.

미루나무 꼭대기에 조각구름이 걸려있네
술바람이 물고와서 걸려놓고 도망갔어요.

몽계구름 흰 구름은 마음씨가 좋은가봐
술바람이 부는 대로 어디든지 풀려간대요.

(동요 "흰 구름" / 박목월 작사, 외국곡)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 곤충채집 놀이에 따라 나선 길 위의 풍경은 아빠를 천진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한다. 초등학교(국민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어린 날의 노래, 또래들과 장난치며 오가던 신작로의 흙먼지 속에 길쭉하게 솟아늘어 서있던 미루나무의 기억과 그때 부르던 동요가 생생히 살아온다. 잊은 줄 알았던 그 노래가 절로 흥얼거려지는 이 순간, 풍경은 아빠의 옛날과 아이들과 함께 걷는 지금, 아이들이 회상할 미래의 어느 날까지를 아름답게 새겨 저장하고 재생하며 세월을 거슬러 예언한다.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 했

던가.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며 가슴 뛰던 아이들이 자라나 아빠와 같이 걷던 길 가의 미루나무를 기억하며 다시 설렘 때마다 세상은 아직 희망이며 멈춘 줄 알았던 순수가 되살아나 자전하고 공전한다. 이런 날의 작은 행복들이 쌓여 삶은 고비를 넘어가고 평생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 비록 지금은 기억되지 않는 사소한 것들이나 살다보면 어느 순간에 문득, 가슴 저런 소중함으로 다가오는 풍경이 있는 삶. 우리의 나날 속에서 꺼내 볼 이 아름다운 위로의 한 페이지를 새길 7월이 다시 왔다.



‘고2 절망에서 23살 희망으로’ 박지혜 님



노원구 학교 밖 지원센터를 통한 검정고시와 일 경험 기회 도전
적성에 맞는 홈패션 기능 익혀 취업하고 전문 CEO 꿈을 향해 달린다

꿈을 지녀라. 그러면 어려운 현실을 이길 수 있다.(릴케)

우리 인생은 매순간이 선택의 연속이다. 나이가 많건 적건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피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이며 선택의 결과에 따라 저마다 걷는 길이 달라진다. 박지혜씨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큰 선택의 기로에 섰다. 집안 형편을 생각하여 성적에 따라 진학한 마케팅 특성화고 과정에 영 적응이 되지 않았다. 결국 깊은 고민 끝에 학교를 그만뒀다. 집안의 걱정은 당연했지만 오빠의 조언에 힘입어 평소의 적성을 찾아 한국문화센터 노원지부에서 운영하던 홈패션 강좌에 입문했다. 재봉을 배워 웬만한 가정용 소품을 만들 정도의 기능을 익혀 자격증을 취득했고 자신이 만든 소품으로 복지관 장터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즈음 복지관 사례관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못 다한 학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검정고시 도전을 선택하게 되었다. 소개받은 노원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반에 들어가 비슷한 상황의 또래들과 어울리며 정성을 다 해주시는 선생님들의 지도와 보살핌 속에서 4개월여 집중한 끝에 합격의 기쁨을 맛보았다. 19살이던 2017년 5월의 일이었다. 검정고시가 끝나면 꿈드림 센터와의 인연은 끝이려니 했었다. 그냥 거쳐 가는 기관이겠거니 했는데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었다. 센터 선생님들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크고 작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끊이지 않는 관심과 기회를 공급받았다. 청소년 진로탐색과 체험을 돕는 상상이룸센터 일을 도우며 홈패션과 틈틈이 따 두었던 보드게임, 놀



이체육지도사 자격으로 청소년 수업을 진행하였고 사회적 경제기업, 노원교육복지센터, 공통청소년문화정보센터 나로 프로젝트, 일살센터 청년 일 경험사업을 통해 인턴십 경험을 쌓았다. 노원의 청소년 종합아트축제인 청아장, 용감한 축제, 청바지 축제의 패브릭공예분야는 물론 외부 기관인 아산 나눔재단, 의류제조업체 ‘핀 컴퍼니’ 등에서도 인턴십을 수행하는 등 힘 있는 도전과 경험의 장이 연계되었다. 그 과정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이 되어 그녀의 진로선택에 확실한 동기가 되었다. 진학보다 본격적인 일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그는 작년 말 정식 직장인이 되었다. 강아지 의류 등 반려동물용품을 제작, 판매하는 내실 있는 관내 유망업체에 당당히 입사해 제작과 관리 보조일로 6개월째 많은 것을 배우며 적응하고 있다. 이제 시작이지만 회사분들의 따뜻한 가르침과 검정고시 합격 후 3년여의 경험들이 헛되지 않아 회사 생활 적응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다. 일이 재밌어서 출근길이 설렘 정도로 즐겁다고 하니 ‘좋아하는 일을 즐기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자’는 삶의 신조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흠여머니와 가장인 오빠를 도와 가족의 생계에도 보

탔이 될 날을 기대하며 근무시간 중에는 웬만해서는 전화 통화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초집중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런 시간들을 아껴 아직 부족한 것들을 더 많이 더 빨리 채우려 함인데 ‘재미가 1%라면 나머지 99%는 힘들을 건디는 것’이라는 일에 대한 대표님의 조언을 새긴 탓이다. 학교 중퇴 후 검정고시를 통해 인연을 맺은 학교 밖 지원센터 꿈드림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이 없었다면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을 까 싶다. 검정고시 준비할 때는 낡고 비좁은 공간이었는데 최근 번듯한 새 건물로 이전한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가보니 감회가 남달랐다 한다. 6월부터는 시간을 내 학교 밖 후배들에게 재봉과 손바느질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또한 센터의 배려이기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참여하고 있는데 학교 밖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좌절하지 마. 나를 봐.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야. 손잡아 줄 많은 도움이 너희 곁에 준비되어 있어. 파이팅! 지금의 일을 기반으로 장차 생활소품을 특화한 CEO가 되는 꿈을 꾸는 23살의 긍정적인 박지혜씨는 상상 이상의 가능성을 향해 이제 막 출발한 젊은 희망의 원석이다. 늘 감사하며 겸손한 자세로 리를 지키고 베푸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녀의 바르고 사들지 않을 푸른 꿈에 무한 응원을 보낸다.

의욕적인 목표가 인생을 즐겁게 한다.(로버트 슐러)

*노원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수락산로 212-19 (상계동, 노원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내) ☎930-1388

폭염을 피해 안전하게 **어르신 무더위 쉼터**에서 **호강**을

폭염특보 발령 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야간 안심숙소 - 노블레스관광호텔 50객실 완비
낮에는 일반 무더위쉼터에서(동 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



5월부터 더위를 동반했던 날씨는 잦은 비로 잠시 주춤하는 듯했다. 6월 초에 이미 30도를 웃돌며 여름다움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예보에 따르면 올 여름은 예년보다 더울 것이라 한다. 폭염일수는 예년 수준인 9.8일보다 많고 밤 사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일수도 예년 수준인 5.1일보다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본격적인 무더위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절정에 달하겠지만 주기적인 찬 공기 남하로 최악의 무더위가 지속되지는 않겠다는 전망이다. 예년보다는 더울 것이라는 예보가 빗나가길 바라지만 구는 올해도 변함없이 구민 건강을 위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2018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데 이어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겹치는 상황에서도 운영했었다. 낮 시간에는 19개 동 주민센터와 9개 종합사회복지관과 각 경로당을 일반 무더위 쉼터로 개방하고 야간에는 안심 숙소를 연다. 야간 무더위 쉼터는 폭염특보(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라 예상할 경우) 발령 시에 특별히 운영하는데 구청 가까이에 있는 호텔 50객실을 준비한다. 폭염에 취약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독거, 수급자)이 대상이며 코로나19 예방수칙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밤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1인 1객실의 편안한 휴식과 잠자리를 제공하고 직원과 의료 인력이 살펴드리며 희망자는 차량으로 쉼터 이동을 지원한다. 객실 정원 초과 시에는 구청 대강당을 추가로 여는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19 확산도 대비하며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나기, 2021년에도 노원 무더위쉼터가 있다.

위 쉼터로 개방하고 야간에는 안심 숙소를 연다. 야간 무더위 쉼터는 폭염특보(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라 예상할 경우) 발령 시에 특별히 운영하는데 구청 가까이에 있는 호텔 50객실을 준비한다. 폭염에 취약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독거, 수급자)이 대상이며 코로나19 예방수칙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밤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1인 1객실의 편안한 휴식과 잠자리를 제공하고 직원과 의료 인력이 살펴드리며 희망자는 차량으로 쉼터 이동을 지원한다. 객실 정원 초과 시에는 구청 대강당을 추가로 여는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19 확산도 대비하며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나기, 2021년에도 노원 무더위쉼터가 있다.

일반 무더위쉼터 (9월 말 까지)	야간 무더위쉼터(8월말 까지)
동 주민센터(19개소), 경로당(245개소) 종합사회복지관(11개소) - 월계(월2), 노원(월3, 공릉(공), 하계(하2), 마들(중2-3), 평화(중2-3), 중계(중4, 북부(상), 상계(상3-4), 월계(하2)신복지센터, 노원노인복지관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폭염 특보 발령 시 주말, 휴일 쉼터 개방(동 주민센터) - 종합사회복지관은 상황에 따라 저녁 9시까지 연장 검토 - 경로당은 경로당 운영시간에 한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만 이용	노블레스 관광호텔(상계6-7동) - 50객실 구청 대강당(상계6-7동)-개인용 텐트(호텔 정원 초과 시 운영) 운영시간 : 20:00~다음 날 07:00 (폭염특보 발령 시) 신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무더위 쉼터 현황 확인 : 노원구청 홈페이지(일일마당→행사란) 참조 문의 : 어르신복지과(☎2116-3764), 각 동 주민센터	

노원실버카페 연계 행복한 기억찾기 캠페인 및 기억력(치매)검사

대상 : 노원구 거주 만 60세 이상
일시 : 7.9(금) 14:00~16:00(매월 둘째주 금요일 정기 진행)
장소 : 노원실버카페(중계근린공원 내)
내용 : 치매 관련 정보제공, 상담, 치매선별검사
비고 : 치매 선별 검사 희망자 신분증 지참



노원구치매안심센터 기억력(치매)검사 예약제 안내

대상 : 노원구 거주 만 60세 이상(만 75세 진입자 및 독거어르신 검진 필수)
일시 : 평일 09:30~17:30(전화 예약 후 방문)
장소 : 노원구치매안심센터(노원구청 5층)
내용 : 치매선별검사(검사 결과에 따라 정밀검사 및 이후 단계 진행)
비고 : 신분증 지참

비대면 치매예방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대상 : 노원구 거주 만 60세 이상(선별검진 후 정상등록자)
일시 : 매주 화요일 10:00~12:00
내용 : ZOOM을 이용한 치매예방교실
비고 : 와이파이(wifi) 활용 가능 가구(ZOOM 활용가능자)

어르신 자서전 만들기 참여자 모집(무료)

내용 : 노원구 거주 만 60세 이상 남성 독거 어르신(10명)
일시 : 7월~10월(주회 참여)
장소 : 노원구치매안심센터(노원구청 5층) 및 외부장소
내용 : 자서전 만들기(인터뷰 및 프로그램 지속 참여 가능자)
비고 : 선별검진 후 정상등록자

치매안심센터 ☎911-7778
서울특별시 노원구보건소

주는 기쁨 받는 행복, 다시 나눔으로 이어지는 복지공동체 노원푸드뱅크마켓



나눔은 기쁨을 배가시킨다. 주고받는

마음이 서로 기쁘고 그 마음이 민들레 흩날리듯 번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진 것이 많아만 가능한 것도 아니고 소리 내어 하지 않으면 더욱 의미 있는 일이다. 여기 이러한 각계각층의 따뜻한 정성이 모여 행복한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다. 있는 듯 없는 듯 요란하지 않게 끊임없는 나눔이 있는 곳, 바로 '노원푸드뱅크마켓'이다. 노원구민의 전당(구 노원구민회관) 지하에 위치한 노원푸드뱅크마켓은 2005년 구 직영으로 옛 공릉2동 청사 자리에서 처음 시작해 지금의 자리로 옮겼고 노원교육복지재단 설립과 더불어 재단 사업으로 꾸려가고 있다.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복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잉여 식생활용품을 기부 받아 저소득 구민, 사회복지기관, 단체에 제공하는 일을 한다. 노원푸드뱅크마켓에서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다. 그 하나는 '푸드뱅크'인데 빠르게 소비해야 하는 식품이나 대량으로 기부 받은 물품을 관내 사회복지시설 또는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민간 급식소와 같이 자선 활동을 하는 곳에 배분하는 일이다. 주로 빵이나 떡과 같이 매일 생산하는 제품들 중 다음 날로 이월된 제품들을 받아 필요한 사회복지 시설에 배분한다. 다른 하나는 '푸드마켓'으로 대상 주민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센터에 진열된 식료품이나 물품 중 필요한 것들을 슈퍼마켓에서 고르듯 선택하여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코로나19 이후로는 마켓 안에서의 접촉을 최



소화하기 위해 1인분의 꾸러미를 아예 만들어 놓아 바로 받아 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현장에서 보니 밀가루, 식초, 떡볶이 떡, 마스크, 스낵, 음료, 수건, 의류 등 다양한 상품들로 구성된 꾸러미를 1층 입구에서 나누어주고 있었는데, 상계3-4동에서 오신 한 어르신은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매번 준비해 주 너무 고맙다고 하신다. 노원푸드뱅크마켓에는 입구부터 기부 받은 물품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기부 물품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기부 업체들도 늘 다르고 지급 품목도 그때마다 달라진다. 무엇보다 가장 많은 수요는 밀가루, 고추장, 간장, 식초와 같은 기본 식재료인데 기부가 적어 후원자들의 월 후원금으로 구입하여 충당하고 있다고 한다. 마켓 안쪽에는 4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사무실이 있

지만 물품 수급을 위해 어디든 수시로 출장하고 자원봉사자들과 물품 정리가 바빠 앉아 있을 시간이 거의 없다고 최영수 센터장은 말한다. 관내 지원 대상자는 2천 4백여 명으로 원활한 마켓 운영을 위해서는 1개 품목 당 몇 개 이상씩은 되어야 소외 없이 지급이 가능하데 관내에 큰 식료품 회사가 없어 물품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안타까운 마음도 전한다. 작년 기준 배부된 성품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2억여 원에 이르지만, 이중 관내에서 기부 받은 성품, 품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그 부족함을 매꾸기 위해 센터의 직원들이 트럭을 몰고 방방곡곡을 직접 다니며 기부물품을 모아 알뜰살뜰히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 존재조차 모르는 이가 많을 노원의 한복판, 노원구민의 전당 지하공간에서 이렇게 쉴 틈 없는 열정과 따뜻한 나눔의 공동체 일상이 16년간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다. 주어도 주어도 부족한 행복한 나눔의 대열에 구민들의 다양한 참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더 크다.

위치 : 노원구 동일로122X(노원구민의 전당 지하1층)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공휴일 휴무)
이용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타 저소득층이 대상이며 국민기초수급자 중 '기초생계급여' 대상자나 전년도 푸드마켓 이용 차상위 계층은 제외
이용방법 :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연초 대상자 선정
이용 및 후원문의 : ☎975-1277



맞춤형 눈높이 언어로 보고 듣고 누리는 노원세상 노원에는 특별한 신문이 있다

시, 청각 장애인을 위한 월간 점자, 영상·음성·수어통역 소식지 -'보이고 들리는 노원'
어르신들을 위한 계간 '신나는 노원(老元)'
발달장애인을 위한 소식지도 10월부터 분기별 발행 추진



노원에는 있다. 매달 25일을 전후해 발행하는 노원구 소식지 '힐링 노원' 외에 특별한 신문이. 구 소식지 '힐링 노원'은 구정에 관한 가능한 많은 정보를 담아 구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원의 가가호호에 배달하고 있는데 이것과는 별개의 소식지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정보 약자층을 위한 특별한 소식지 중의 하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다.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심한 장애의 시각장애인과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해 '힐링 노원'을 매달 245부씩 점자로 발행해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또 하나는 어르신소식지 '신나는 노원(老元)'이다.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여가, 일자리 등의 소식들을 모아 분기별(3,6,9,12월)로 발행하여 관내 모든 경로당과 노원노인복지관 등 어르신 시설 등에 배포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경로당을 폐쇄하여 봄, 여름 호 발행은 중단했지만 경로당이 열리는 하반기부터는 다시 정상껏만 들어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올 해 5월부터는 시, 청각 장애인을 위한 영상소식지 '보이고 들리는 노원'을 월간으로 제작해 노원인터넷방송(www.nbs.go.kr) 생생뉴스와 유튜브 채널 '보이고 들리는 노원'을 통해 소식을 전하고 있다. 보이고 들리는 노원은 구 소식지 '힐링 노원'의 주요 소식을 선정하여 영상, 음성, 자막, 수어통역과 함께 10분 이내로 제작한 시, 청각 장애인 뿐만 아니라 구민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상소식지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르면 10월부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문도 전국 최초로 발행한다. 지적, 자폐성 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 디자인 등으로 구 소식지와 발달장애인 맞춤 정보를 재편집하여 분기(1,4,7,10월)별로 종이소식지를 발행, 해당 가정(2,688명)에 배포하고 유관기관에도 비치할 예정이다. 구민 누구나 구정에 대한 알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지면과 영상, 음성으로 각 계층의 눈높이 언어에 맞게 구 소식지 '힐링 노원'을 비롯한 특별한 신문을 힘써 만들고 보급하는 이유다. 발행사 실조차 모른다면 의무를 다하지 못함이며 알고도 외면하는 것은 알 권리를 스스로 축소하는 일이다. 이 여러 형식의 소식지를 통해 모든 구민들이 많은 적든 유익한 정보를 얻고 노원이라는 공동체적 삶을 공유하며 생활 속에서 자랑스럽게 누리도록 하려는 구의 노력은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열독을 기대한다.

*미디어홍보담당관: ☎2116-3424(힐링노원 점자, 어르신),
☎2116-3406(보이고 들리는 노원)

*장애인복지과: ☎2116-3316(발달장애인 소식지)

노원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도우미)를 이용한 출산가정
- 2021. 1.1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 영아의출생일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연속하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모 또는 모신친(영아는 노원구에 출생신고한 자)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서비스 기간 표준형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90% 환급

*저소득층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환급대상 및 타 지자체에서 본인부담금을 수령한 대상은 제외
신청기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2021.11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소급 지원

(생활보건과 모자보건팀 ☎2116-4348)

아기맞이 클린하우스 신청 안내

대상: 다자녀(셋째아 이상), 수급자·차상위 자격 출생아 가구, 출산가정 부모 중 알레르기 질환 진단가구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내용: 집먼지 진드기 매트리스 커버 케어, 가구·집기 공간살균, 해충방제

신청기간: 출산 40일 이전 ~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방법: 우편, 보건소 방문, 온라인 접수 후 쿠폰 발급
(생활보건과 모자보건팀 ☎2116-4349)

청소년 디지털 디톡스 활동단 모집

대상: 노원구 초·중·고등학교 및 학부모
내용: 중독예방교육 참여 후 중독예방 실천활동 인증샷 캠페인 활동(교육 이수 후 2주간)
접수기간: 7.1(목) ~ 7.23(금)
신청방법: 노원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www.nowon-addiction.or.kr) 온라인 접수
교육일시: 7.28(수) 13:00 ~ 15:30
진행방법: 실시간 온라인 강의(교육 당일 발송된 URL 접속하여 교육 참여)
(노원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941-3677)

생명지킴이교육 수강생 모집

인원: 주민 60명(회당)
일시: 7.7(수) 오후 2시~4시 / 7.23(금) 오전 10시~12시
장소: 구청 소강당
교육내용: 중앙자살예방센터 '보고 듣고 말하기' 프로그램
신청방법: 전화접수(선착순)
(생활보건과 생명존중팀 ☎2116-4327)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안내

대상: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및 독거·취약가구)
일시: 연중 신청가능 (장비 소진 시 까지)
내용: 중증장애인의 안전생활 지원을 위해 화재감지센서·활동센서 등을 설치하여 119와 연결체계 구축, 응급상황 모니터링 등 진행.
신청: 노원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 및 동 주민센터 신청
지역센터: (사)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
☎070-4667-0826~7
(장애인복지과 ☎2116-3309)

부모 같은 심정으로 보육환경을 개선한다

월계3동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으로 재탄생

20년 된 시설 안심환경으로 대수선, 7월부터 새 환경에서 보육
중계어린이집 등 3개소도 연내 환경 개선



통부 주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신청하였고 국비 매칭사업비 등 약 2억 3천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환경 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낡은 건축물의 단열, 창호, 열원 설비와 같은 건축물 성능요소를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주요 공정은 석면제거를 위해 천장재 및 경량철골 천장틀 전

체를 철거하고 1층 후면 보육실의 단열을 위해 창호를 북층유리로 교체하며 전 층에 걸쳐 바닥 및 벽 마감재 철거와 신설, 도어 및 핸드레일 등 집기 교체와 도서열람 공간 등을 새로 꾸민다. 통합 배선, 배관과 비디오, 도어폰도 신설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통신·소방 장비도 새로 설치한다. 보육실 슬라이딩 칸막이와 교재·교구장 등 낡은 보육환경을 바꾸고 비상탈출구 난간 설치 및 보수 또한 시행한다. 공사기간 중 단지내의 공동육아방과 경로당을 대체 보육장소로 운영하여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7월 3일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새 집 같은 그린 보육환경에서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게 되었다. 15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는 월계3동 어린이집 외에도 국공립 시설인 중계, 노원, 하계어린이집도 선정되어 연내에 순차적으로 진행하는데 정상 보육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한다는 계획이다. 월계3동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개원식은 7월 중순에 가질 예정이다. 아이도 부모도 안심할 수 있는 양질의 맞춤형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는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여성가족과 ☎2116-3730)

노원구와 7개 대학이 함께하는 특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8~9월)

노원평생시민대학

교육장소: 각 대학교 내

신청방법: 노원평생교육포털(www.nowon.kr/ll) 연계 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자세한 내용은 노원평생교육포털(www.nowon.kr/ll)에서 확인하세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과 ☎2116-3996)

대학명 (문의)	강좌명	강의시간	강의기간	접수기간	정원	수강료
광운대학교 (940-5273)	인공지능 서비스 로봇 코딩 과정 (청소년, 청년)	오전반(월, 수) 10:00 ~ 12:00	오전반(월, 수) 8. 9 ~ 9. 8	~ 7. 2(금)	20명	10,000원
		오후반(월, 수) 13:00 ~ 15:00	오후반(월, 수) 8. 9 ~ 9. 8		20명	10,000원
		오전반(화, 목) 10:00 ~ 12:00	오전반(화, 목) 8.10 ~ 9. 9		20명	10,000원
		오후반(화, 목) 13:00 ~ 15:00	오후반(화, 목) 8.10 ~ 9. 9		20명	10,000원
	태블릿 기반 빅데이터 분석 처리과정 (청소년, 청년)	오전반(월, 수) 10:00 ~ 12:00	오전반(월, 수) 8. 9 ~ 9. 8	~ 7. 2(금)	20명	10,000원
		오후반(월, 수) 13:00 ~ 15:00	오후반(월, 수) 8.10 ~ 9. 8		20명	10,000원
		오전반(화, 목) 10:00 ~ 12:00	오전반(화, 목) 8.10 ~ 9. 9		20명	10,000원
		오후반(화, 목) 13:00 ~ 15:00	오후반(화, 목) 8.10 ~ 9. 9		20명	10,000원
	치매 예방게임 프로그램 전문강사 과정 (청소년, 청년)	오전반(목, 금) 10:00 ~ 12:00	오전반(목, 금) 8. 5 ~ 9. 3	~ 7.30(금)	20명	10,000원
		오후반(목, 금) 13:00 ~ 15:00	오후반(목, 금) 8. 5 ~ 9. 3		20명	10,000원
		오후반(목, 금) 15:00 ~ 17:00	오후반(목, 금) 8. 5 ~ 9. 3		20명	10,000원
		저녁반(목, 금) 19:00 ~ 21:00	저녁반(목, 금) 8. 5 ~ 9. 3		20명	10,000원
		오전반(토) 10:00 ~ 12:00	오전반(토) 8. 7 ~ 10. 9		20명	10,000원
		오후반(토) 13:00 ~ 15:00	오후반(토) 8. 7 ~ 10. 9		20명	10,000원
		오후반(토) 15:00 ~ 17:00	오후반(토) 8. 7 ~ 10. 9		20명	10,000원
		저녁반(토) 19:00 ~ 21:00	저녁반(토) 8. 7 ~ 10. 9		20명	10,000원
		화, 목 07:00 ~ 08:50	화, 목 8. 3 ~ 8.26		반별 10명	10,000원
		화, 목 10:00 ~ 11:50	화, 목 8. 3 ~ 8.26		반별 10명	10,000원
		화, 목 18:00 ~ 19:50	화, 목 8. 3 ~ 8.26		반별 10명	10,000원
		월, 수 08:00 ~ 09:50	월, 수 8. 2 ~ 8.25		반별 10명	10,000원
삼육대학교 (3399-3715)	힐링노원 테니스 (초급) (유청소년, 성인 어르신)	월, 수 10:00 ~ 11:50	월, 수 8. 2 ~ 8.25	7.12(월) ~ 7.15(목)	반별 10명	10,000원
		월, 수 12:00 ~ 13:50	월, 수 8. 2 ~ 8.25		반별 10명	10,000원
		월, 수 16:00 ~ 17:50	월, 수 8. 2 ~ 8.25		반별 10명	10,000원
		화, 목 08:00 ~ 09:50	화, 목 8. 3 ~ 8.26		반별 10명	10,000원
	힐링노원 스쿼시 (초급) (유청소년, 성인 어르신)	화, 목 10:00 ~ 11:50	화, 목 8. 3 ~ 8.26		반별 10명	10,000원
		화, 목 12:00 ~ 13:50	화, 목 8. 3 ~ 8.26		반별 10명	10,000원
		화, 목 16:00 ~ 17:50	화, 목 8. 3 ~ 8.26		반별 10명	10,000원
		화, 목 10:00 ~ 11:50	화, 목 8. 3 ~ 8.26		반별 10명	10,000원
		화, 목 12:00 ~ 13:50	화, 목 8. 3 ~ 8.26		반별 10명	10,000원
		화, 목 16:00 ~ 17:50	화, 목 8. 3 ~ 8.26		반별 10명	10,000원
서울과기대 (970-9191~2)	생활도자 업사이클링 미술교육 (구민)	금 13:00 ~ 15:00	금 8. 6	7.12(월) ~ 7.30(금)	10명	10,000원
		금 13:00 ~ 15:00	금 8.13		10명	10,000원
		금 13:00 ~ 15:00	금 8.20		10명	10,000원
		금 13:00 ~ 15:00	금 8.27		10명	10,000원
서울여자대학교 (970-7534)	SWU 자유인생학교 각 6박7일 (구민 누구나)	6박 7일(월 ~ 일)	8. 2(월) ~ 8. 8(일)	7. 1(목) ~ 7.23(금)	15명	15,000원 (식대 85,000원 별도)
		6박 7일(월 ~ 일)	8. 9(월) ~ 8.15(일)	7. 1(목) ~ 7.30(금)	15명	15,000원 (식대 85,000원 별도)
		6박 7일(월 ~ 일)	8.16(월) ~ 8.22(일)	7. 1(목) ~ 8. 6(금)	15명	15,000원 (식대 85,000원 별도)
		6박 7일(월 ~ 일)	8.23(월) ~ 8.29(일)	7. 1(목) ~ 8.13(금)	15명	15,000원 (식대 85,000원 별도)
인덕대학교 (950-7987)	원예 심리 지도사 2급 과정(성인, 신중년)	4박 5일(월 ~ 금)	8.30(월) ~ 9.3(금)	7. 1(목) ~ 8.20(금)	15명	10,000원 (식대 50,000원 별도)
		화 14:00 ~ 17:00 (3시간)	8. 3 ~ 8.31	7.19(월) ~ 7.23(금)	15명	10,000원

「노원 정원지원센터」 정원학교 8월 접수

접수기간: 7. 9(금) 10:00 ~ 마감시(선착순)

접수방법: 예약 홈페이지 선착순 온라인 접수

(노원구 홈페이지 '노원 정원지원센터' 검색)

대상: 누구나(성인)

문의: 노원 정원지원센터 ☎2116-0598, 2116-0566

프로그램

구분	운영시간	참가비	내용
강의형	나도 가드너 4주 과정 토 10:30~11:30	4만 원	가정정원사 양성 (정규 과정)
	화분갈이 및 천연비료 만들기 체험 1회 과정 수 10:30~11:30	1만 원	분갈이와 유지관리 방법 (초급 과정)
체험형	가드너 1일체험 (목요일강좌) 1일 체험 목 10:30~11:30 14:30~15:30	1만 원	각종 식물가꾸기, 플랜테리어, 화분갈이, 비료만들기 등 테마별 1일체험 강좌
	가드너 1일체험 (금요일강좌) 1일 체험 금 10:30~11:30 14:30~15:30	1만 원	

숲길 등산 프로그램 안내

대상: 초등학생 이상 ~ 성인

일시: 11. 30(화) 까지(10:00~12:00)

장소: 수락산, 불암산, 초안산, 영축산

인원: 10명 이내(참가비 무료)

내용: 숲길 생태교육·산길 트레킹 체험

신청방법: 노원구청 홈페이지(www.nowon.kr)

→소통참여→온라인접수

(여가도시과 ☎010-8158-9627, 2116-0546)



불암 치유의 숲 프로그램 안내

일시: 11. 27(토) 까지(10:00~12:00 / 15:00~17:00)

장소: 불암산 치유의 숲길(불암산 힐링타운 내)

인원: 10명 이내(참가비 무료)

내용: 숲 오감체험, 숲 산림욕체조, 물치유, 산책로 걷기,
명상과 요가 등

신청방법: 노원구청 홈페이지(www.nowon.kr)

→소통참여→온라인접수

(여가도시과 ☎010-3387-1427, 2116-0546)



평화통일

어린이·청소년
콘텐츠 공모전

2021. 5. 6. ~ 7. 31. 그림, 사진, 영상(UCC)

주제

- 어린이·청소년이 생각하고 희망하는 평화와 통일
- 아산가족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 등 평화·통일관련 주제

공모자격: 노원구 거주 어린이·청소년

※만23세 이하, 개인 또는 4명 이하 팀 참가 가능

현장 및 우편 접수: 노원구청 4층 복지정책과

이메일 접수: dbalsgkals@nowon.go.kr

(복지정책과 ☎2116-3645)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으로 시장과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착한 상품과 착한 소비의 만남!

스토어 36.5 노원점

정직하고 질 좋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다양한 제품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 복합판매장!
(공정무역 제품, 친환경 생활용품, EM 제품류, 안전한 간식류 등)

위치: 노원역 4번출구

(스토어 36.5 노원점 ☎3391-3650)

자활센터와 주민이 함께 만드는 건강한 먹거리

서울노원지역자활센터 '함께밥상'

-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씬터제공
-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 지역주민들과 만들어 가는 착한가격과 합리적인 맛을 추구하는 식당
- 서울광역자활센터 공동브랜드 '함께밥상'
- 프리미엄 종합음식점 운영
- 한식, 양식, 분식류

• 함께밥상 중계점 ☎949-3352

노원로 333, 2층 204호(중계동, 목련아파트 상가)

• 함께밥상 상계점 ☎936-3356

상계로9가길 65-2

● 사회적경제종합안내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933-7150)

중랑천환경센터 여름맞이 프로그램

교육장소: 중랑천환경센터 및 중랑천·당현천

신청방법: 중랑천환경센터 네이버 예약시스템

신청기간: 각 교육일 전월 20일~교육 7일 전까지

프로그램

교육일정	프로그램	대상	내용
7.3(토), 8.28(토), 9.4(토), 10.2(토) 10:00~11:30	당현천 도시어부	초등 이상	당현천 속 물고기 체험 (보호자 필수 동반)
7.17(토), 8.21(토), 9.11(토), 10.16(토) 10:00~11:30	중랑천 도시어부	초등 이상	중랑천 속 물고기 체험 (보호자 필수 동반)
7.10(토), 7.24(토) 10:00~11:30 7.15(목), 7.29(목) 15:00~16:30	구해줘 수달 홈즈!	6세 이상	'수달 프로젝트 2탄' 수달이 살기 좋은 터전을 중랑천에 마련해주어요!
7.10(토), 7.24(토) 14:00~15:30 7.14(수), 7.28(수) 15:00~16:30	수생태 현미경 교실	6세 이상	중랑천에 살고 있는 수서생물을 현미경을 통해 알아봐요!
7.16(금), 7.30(금) 8.13(금), 8.27(금) 19:00~20:30	중랑천 야간 곤충 탐험대	6세 이상	등화채집으로 하천의 다양한 곤충을 불러보아요!

(중랑천환경센터 ☎938-9520)

장기요양요원 무료교육 및 상담

서울시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돌봄노동자에게 다양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 ✓ 직무양상
- ✓ 건강증진
- ✓ 권리교육
- ✓ 노동상담
- ✓ 심리상담
- ✓ 처우개선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5층(미아역 4번 출구)

02-981-9838

노원센터 02-931-9838(노원역 8번 출구)

회기센터 02-960-0550(회기역 1번 출구)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보세요!

팝업 링크를 클릭! 동북센터 채널을 추가하면 무료교육과 다양한 소식을 받아 보실 수 있어요!



수락산 숲 속 빛나는 예뻐예술학교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며~

지난 3월 상계동 숲속에 새 동지를 둔 노원 구립 예뻐예술학교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해 설립한 국내 최초의 위탁형 예술 대안학교다.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사회성이 부족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또래의 평균 지능보다 낮은 느린 학습자라 일컫는다. 여리고 순수하며 자존감이 낮고 비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당하기에 학부모들의 차별화된 교육시설 요구가 컸다고 한다. 수락산 벽운계곡 쪽 등산로 초입, 계곡을 끼고 데크길을 오르다 보니 무성한 녹음 속에 넉넉히 자리 잡은 3층 규모의 학교가 편안하게 반겨준다. 노원달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도 함께하고 있는 건물의 2, 3층이 예뻐예술학교다. 마침 2층 교실에서는 음악 수업이 한창이었다. 학생들과 선생님이 둘러앉아 커다란 첼레와 소고, 템버린 등 여러 가지 타악기를 두드리며 소리 감각을 익히는 즐거운 수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악기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소리를 찾아 친구들과 합주를 해보는 것이 오늘의 주제라고 한다. 잠시 동안 학창시절로 돌아가 동심에 젖어본다. 학력이 인정되는 예뻐예술학교가 일반학교와 다른 점은 수준에 맞춘 보통 교과 수업 외에도 학생들의 예술적 잠재력을 키워줄 음악, 미술, 무용 등 예술 분야의 대안교과를 함께 진행한다는 것이다. 예술 교육을 통해



창의력을 키우고 재능을 발휘시켜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높이며 경계를 허물고 사회 적응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고려해 쉽게 가르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재미를 더한 창의적인 활동과 신체 교육이 동반되도록 한다고 한다. 부모들의 애타는 심정을 알기에 특수한 청소년이 아닌 자신의 꿈을 당당히 이루는 특별한 청소년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선생님들을 비롯한 헌신적인 많은 손길이 필요함을 느낀다. 주의 산만하고 미숙한 아이로 친구들에게 무시와 따돌림을 당했던 학생들도 이 학교에 오면서 그저 남보다는 조금 느릴 뿐 나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큰 변화다. 구는 창의와 인성 위주의 교육을 통해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수락산 숲속 학교로의 이전도 그 중의 하나다.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일에 힘쓰는 노원의 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는 하루였다. 경계선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체험하며 뜨거운 응원을 보낸다.

고 한다. 부모들의 애타는 심정을 알기에 특수한 청소년이 아닌 자신의 꿈을 당당히 이루는 특별한 청소년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선생님들을 비롯한 헌신적인 많은 손길이 필요함을 느낀다. 주의 산만하고 미숙한 아이로 친구들에게 무시와 따돌림을 당했던 학생들도 이 학교에 오면서 그저 남보다는 조금 느릴 뿐 나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큰 변화다. 구는 창의와 인성 위주의 교육을 통해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수락산 숲속 학교로의 이전도 그 중의 하나다.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일에 힘쓰는 노원의 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는 하루였다. 경계선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체험하며 뜨거운 응원을 보낸다.

*예뻐예술학교: 노원구 동일로250길 44-47 2,3층 / ☎936-7253~5



안희주 ahj9744@naver.com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방문(화상)학습 지원

지원대상: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만 4세 ~ 만 10세 자녀
(2011. 1. 1 ~ 2016. 12. 31 출생자녀)

신청기간: 2021년 연중 수시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월~금 / 09:00~18:00)

*신청자(보호자) 신분증 지참

교육기간: 2021. 3. ~ 2021. 12.

지원내용: 1:1 맞춤 방문(화상)학습(도서, 교과목 등) 및 학습 상담(국, 영, 수, 사회, 과학, 독서 등 1과목 선택)

교육비: 월 35,000원~42,000원

(과목별 다름, 지원금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지원금: 월 22,000원(구청 15,000원, 학습기관 7,000원)

본인부담: 월 13,000원 ~ 20,000원

(여성가족과 ☎2116-3715)

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 무료 법률상담

대상: 노원구민 누구나

상담영역

- 마을변호사: 민사, 행정, 형사 관련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 해석 등
- 마을법무사: 부동산 등기, 개명, 경매 등 비송사건 및 법률서류 작성 상담 등

상담 일정: 각 동 주민센터 정기상담일(매월 1~2회)에 실시
신청 문의: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사전신청

(기획예산과 ☎2116-3173)

다자녀 가정 영화관람권 지급

신청자격: 관내 만 20세 미만의 3자녀 이상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구성원

신청기간: 2021. 1. 1 ~ 2021. 12. 31(주말 및 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소재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필참)

*연 1회 지급, 신청기간 내 미신청시 소급지원은 불가

지원내용: 주민등록상 가족구성원 수만큼 롯데시네마 영화권 지급(노원관, 수락산관)

(여성가족과 ☎2116-3741)

2021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에너지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기간: 연중(사업종료시까지)

내용: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에어컨 등 난방 및 냉방용품 지원(가구당 평균 220만원)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정책과 ☎2116-3664)

안심홈세트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대상: 노원구 여성 1인 가구 중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거주자(한부모 가정 및 임대아파트 가능)

지원 물품: CCTV, 현관문 보조키, 휴대용 간급벨

신청기간: 7.1(목) ~ 7.31(일) *신청가구 부족 시 연장 예정
신청방법

• 노원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 이메일: mskim4020@hanmail.net

신청방법: 현장실사, 선정심의를 통해 선정 후 개별통보

문의: 노원구 여성단체연합회(☎010-3755-0670)

(여성가족과 ☎2116-3737)

4차산업분야 콘텐츠 온라인학습 사이트 '앤드넷'

강좌분야: AR, VR, IoT, 코딩(파이썬), 빅데이터, 로봇

홈페이지: andyouth.nweb.kr

수강료: 10,000원 ~ 15,000원 (재료비 별도)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949-7766)

마을구석구석, 단 한사람의 구민 피해도 용납하지 않는다 2021. 물아칠 비·바람을 대비하는 노원의 자세

풍수해 대책 기간 10월 15일까지 운영, 재난안전대책본부 24시간 가동
취약지 및 각종 시설물 수시 점검, 역류방지시설 270세대 지원, 77가구 돌봄 인력 연계
풍수해보험으로 피해 보상(보험료 최대 92%까지 정부 지원)



하수관로정리

하천배수로정리

하수사각정리

양수계정리

취약지정리

2021년은 5월부터 이미 평년 대비 1.8배 이상 많은 강수율을 기록하고 있고 장마가 시작되는 6월 또한 잦은 비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의 3개월 전망치를 보면 7, 8월은 평년과 비슷한 비를 예상하고 있다고는 하나 작년과 같은 극심한 집중호우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전망에 따르면 태풍도 8월에 1~3개의 발생 가능성을 예보하고 있어 10월까지 그 수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상화된 이상기후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집중 호우와 태풍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구는 2021년에도 풍수해 종합대책을 가동하고 있다. 시설응급복구, 의료방역, 에너지 기능 복구, 수색구조구급 등 13개 반으로 꾸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사전 예방과 긴급 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집중 호우 시에는 단계별(호우주의보, 호우경보, 홍수경보) 발령에 따라 주민 경고 및 대피와 긴급 구조까지 현장지휘소를 가동하게 된다. 상황별 위기관리 실무부서를 지정하여 침수(주택, 상가, 도로, 하천시설물 등), 급경사지 붕괴(석축, 옹벽, 축대 파손 등), 각종 시설물 파손, 라이프라인 피해(전기, 가스, 식수, 통신 두절 등), 위생(재난 쓰레기, 감염병), 재난 구조 및 구호 등 위기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장마와 태풍이 집중되기 전, 관내 산지 등 고지대 및 재개발·재건축지 등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지역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순찰은 기본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하주택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취약지 신청가구 270세대에 역류방지시설 1,120개, 물막이판 510개를 지원하며 과년도 침수피해 이력이 있고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된 77가구에 돌봄 공무원과 봉사자를 지정하여 긴급 지원을 전담한다.

한편, 풍수해 피해 시 풍수해보험을 통한 실질적 보상제도도 운영한다. 전국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는 풍수해 보험은 주택, 소상공인 상가, 은실 등에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대상에 따라 총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불가항력의 상황이 아니라면 예측 가능한 재난은 대비하는 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방심하지 않고 철저히 주변을 살펴 풍수해 등 재난 없는 노원 만들기에 구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

(치수와 ☎2116-4171, 4170)

(풍수해 보험 ☎2100-5103~7)



마스크를 벗어버릴 그 날이 가까우니 최후의 일까지 방심하지 말자

60~74세 백신 접종 예약률 82%, 서울시자치구 중 1위

☑ 18세 이상 접종률 34.2% → 152,165명

☑ 75세 이상 1차 접종 96.9%(30,931명), 60~74세 접종 81%(71,828명)

☑ 백신 접종 구민에게는 축하의 인증배지 선물

지난 6월 3일 마감한 60~74세 백신 접종 예약 결과 노원이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82%의 예약률을 나타냈다.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구민들의 결단과 수준 높은 공동체 의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결과다.

6월 22일 현재(이하 기준)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안전하고 편안한 백신접종센터 2곳을 통해 1차 30,931명(96.9%), 2차 21,570명(67.5%)이 순탄하게 접종을 이어가고 있다.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한 토요일 연장 접종도 의료진과 직원, 백신의병단들의 헌신적인 돌봄과 함께 계속되고 있다. 6월 10일 부터는 백신 접종을 마친 어르신은 물론 모든 접종자에게 축하의 인증배지를 순차적으로 나눠주고 있다. 접종 예약률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최고였던 60~74세 접종자는 71,828명으로 예약자의 99.9%가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이미 접종을 마쳤다. 1회 접종이면 끝나는 안센백신 대상자인 예비군과 민방위대원은 단기간에 11,031명(96%)이 접종에 응했고 잔여백신 접종자도 3,354명이나 되었다. 이로써 노원의 18세 이상 접종자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60~74세, 대응요원, 요양시설, 돌봄 종사자, 보건 의료인, 잔여백신 접종자까지 총 152,165명이며 목표인원 31만 여명의 48.9%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여전히 휴일 없이 운영하고 있는 구청

임시선별검사소에는 점차 인원이 감소하는(1천명에서 6백 명대) 추세로 누적인원 154,545명이 선제검사를 받아 403명(0.26%)의 확진자를 가려냈으며 복지시설 등 종사자들의 주기적 선제검사는 누적인원 88,041명에 달하고 있다. 전국 코로나 확진자수가 일평균 500명대의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노원의 누적 확진자는 2,220명(퇴원자 2,142명)을 기록하고 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조만간 코로나 19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실한 희망이 현실화 되고 있다. 전 국민의 1차 접종율도 29%를 넘어섰고 백신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는 날로 더해가고 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디자. 고지가 멀지 않다. 마스크 벗고 맘껏 호흡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접종을 마치면 이 자유를 먼저 맛볼 수 있다. 1년 넘게 참았는데 지금 포기하면 너무 아깝지 않은가.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생활화 등 자가배려 방역은 여전히 필수 백신이다. 임시선별검사소(노원구청 신관 주차장- 평일 09시~17시, 토·일·공휴일 09시~13시 운영)를 찾아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자. 여름 무더위와 장마도 코로나19와의 거의 다 이겨가는 싸움 중 단 시킬 수 없다. 평범같이 짙짙하게 다시 파이팅!

(노원구 재난안전대책본부 ☎2116-0797)

그늘막과 벤치마저 스마트하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 스마트노원을 즐겨라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8대 안전서비스, 스마트 앱으로 생활지리 정보 제공

스마트 미디어게시판 · 횡단보도 · 벤치, 재난감시 고광각카메라, 드론아카데미도 시범 운용



스마트앱



스마트벤치



스마트 횡단보도



고광각카메라 관제영상



미디어게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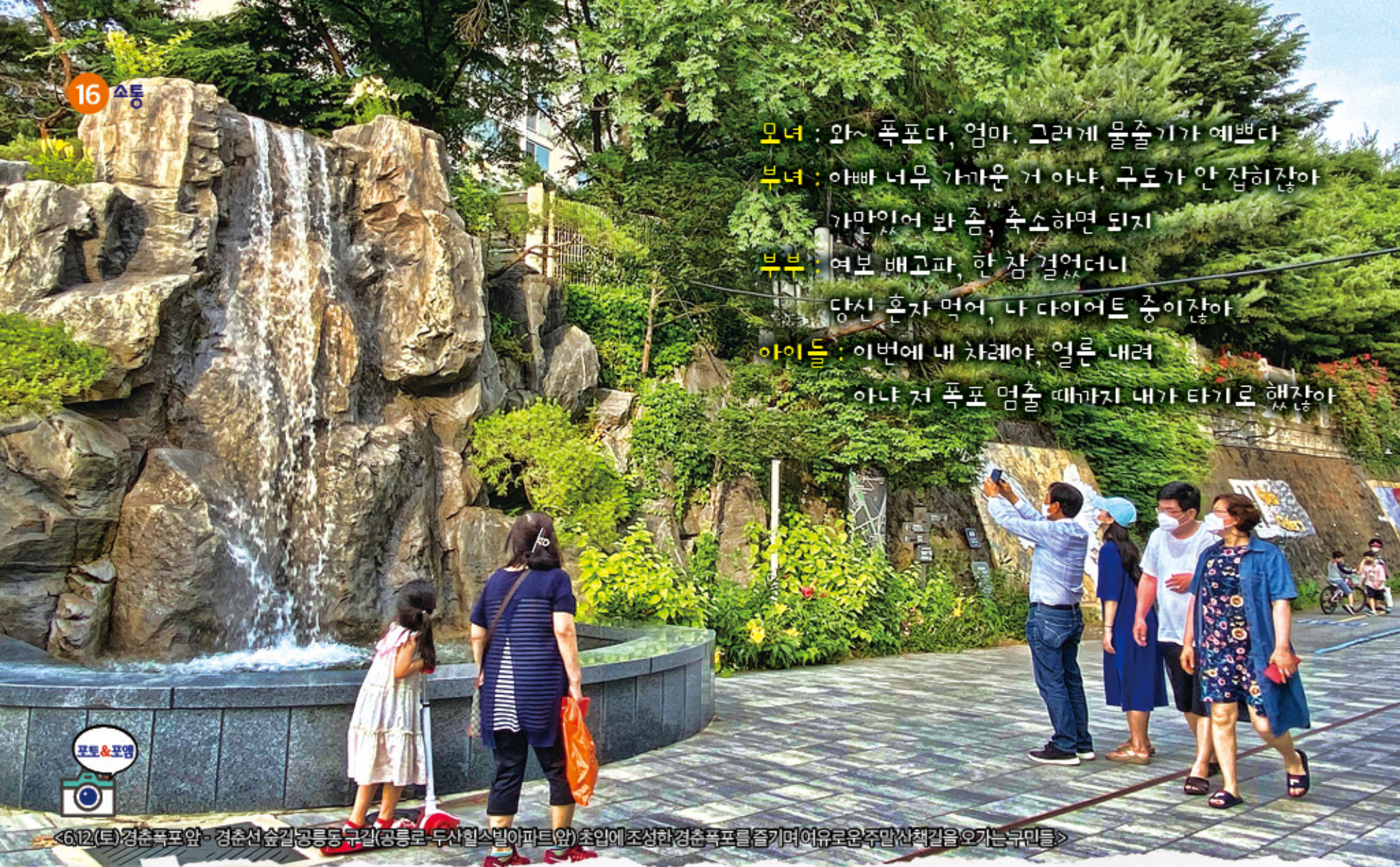
스마트도로

21세기 도시 행정의 새로운 조류는 스마트시티의 완성이다. 스마트 시티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사이버 물리 시스템, 빅데이터 솔루션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통합 환경을 구축하여 도시의 각종 자원과 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미래형 첨단도시다.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공공데이터 활용과 온·오프라인의 복합 편의장치를 통해 교통, 복지, 환경, 방재 등 다양하고 유용한 도시 행정서비스를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촘촘히 연계하는 세상이다. 노원도 스마트 시티를 향한 기반을 차근차근 닦고 있다. 스마트도시를 신설하고 2,084대의 생활밀착형(방범, 공원, 어린이안전, 주차단속, 무단투기, 화재예방) CCTV를 관제하는 통합운영센터를 꾸리고 있으며

서울시 CCTV 안전센터와 연계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112센터 긴급영상 및 긴급출동, 수배차량 검색, 119 긴급출동, 재난상황 긴급대응, 어린이 및 치매노인 보호 서비스, 민간보안과 공공안전 연계서비스, 전자발찌 범죄피해 예방 지원 등 8대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보안업체를 포함한 각 유관 센터와의 안정적인 공조시스템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도시 특화서비스도 시범 구축했다. 우선 스마트 미디어게시판을 다중이용 장소인 경춘선 숲길, 불빛정원, 마을버스 승차대, 나비정원, 음악분수 등 8곳에 설치해 구경 행사를 알리는 물론 긴급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스마트 벤치 및 그늘막도 시범 설치했다. 태양광을 이용해 충전하고 휴대폰 충전도 가능하며 밤에는 경관조명 기능도 되는 1.9m 너비의 스마트 벤치 총 11대를 경춘선 숲길, 영축산과 불암산 힐링타운, 당현천에 시공을 마쳤다. 역시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친환경 스마트 그늘막은 수동 그늘막을 대체해 노원구청 앞과 월계동의 연지초등학교 앞에 세웠고 노원역 사거리에 4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인데 일몰과 일출, 온도와 바람세기를 감지해 자동으로 열고 닫혀(※열 때 5.4m x 3m)

LED 패널이 장착되어 있어 홍보와 조명효과까지 가능하다. 연지초등학교 앞에는 라이더센서(※초당 수십 바퀴를 돌면서 빛을 사방으로 쏘았다가 다시 돌아오는 정보를 토대로 3D 이미지를 구현)를 활용한 스마트 횡단보도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감지기를 이용해 차량, 보행자, 차량속도 등 정보를 수집하여 횡단보도 가까이 설치한 2m 높이의 미디어보드에 보행자와 운전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교통안전에 위한 첨단 서비스다. 재난관리를 위한 고광각카메라도 시범 설치했다. 산불, 하천 범람 등 재난 관리를 위해 구청, 상계3·4동 주민센터, 경춘철도 등 7개소에 30배 줌 확대가 가능한 카메라 9대를 설치하고 구 센터에서 종합 관제하여 신속한 상황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구민들이 모바일을 통해 긴급 생활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GIS 기반의 노원 스마트 시티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세동기, 전기차 및 휠체어 충전소, CCTV, 스마트 벤치 및 그늘막의 위치와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다. 생활에 유용한 위치 정보를 계속 추가할 예정인데 스마트폰 스토어에서 '노원 스마트 시티'를 다운 받아 간편히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직원 대상 드론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입체적인 업무역량을 강화해 다각적인 대민 서비스 확장에 꾀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씩 스마트 도시 노원을 향한 기틀이 쌓여 어느 순간 거대한 통합 관제망을 갖추게 될 것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형 일상이 현실화 될 것을 확신한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노원의 그 과정 속에 우리는 함께 살고 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스마트도시팀 ☎2116-4920)



모녀 : 와~ 폭포다, 엄마. 그렇게 물줄기가 예쁘다
부녀 : 아빠 너무 가까운 거 아냐, 구도가 안 잡히잖아
 가만있어 봐 좀, 축소하면 되지
부부 : 여보 배고파, 한 참 걸었더니
 당신 혼자 먹어, 나 다이어트 중이잖아
아이들 : 이번에 내 차례야, 얼른 내려
 아냐 저 폭포 멈출 때까지 내가 타기로 해잖아



<6.12(토) 경춘폭포앞 - 경춘선숲길공릉동무길(공릉로-두산힐스빌아파트앞) 초입에 조성한 경춘폭포를 즐기며 여유로운 주말산책길을 오가는 주민들>



맛있게 재미난 여름 토실한 하지감자버무리떡 감자몽생이

감자가 가장 맛있는 계절, 여름. 봄에 일찌 감치 심어놓은 감자의 잎줄기를 잡고 속 뽑아 올리면 알알이 딸려오는 감자알들은 매

번 감탄스럽다. 우리네 밥상의 단골메뉴 감자는 어떻게 해도 좋다. 폭신하게 찌고 부치고 조리고 굽고, 국에 찌개에 넣어도 지금이 딱인 포슬포슬한 하지감자는 영양이 풍부하여 여름을 나는 우리 몸에 더욱 좋다. 그냥 찌 먹기만 해도 충분히 맛있지만 쫄쫄쫄쫄한 식감이 별미인 '감자몽생이'를 즐겨보자. 감자몽생이를 만들기 위해 첫 번째로 할 일은 감자의 껍질을 벗기고 강판에 가는 것. 그리고 면보를 준비해 갈아놓은 감자를 넣고 물기를 짜주는데 물기가 전혀 없으면 반죽이 잘 뭉쳐지지 않으니 너무 꼭 짜지 않는 게 포인트. 이때 짜고 난 감자물도 버

리지 말고 가라앉은 전분을 감자전더기에 섞어주면 쫄쫄쫄한 식감을 더할 수 있다. 찻국(강낭콩, 완두콩, 울타리콩 등)을 씻어 물기를 빼주는데 찻국이 없더라도 서리태, 쥐눈이콩 등 먹고 싶은 마른 콩을 불려 쓰면 된다.

대추는 씨를 발라 돌돌 말아 자르고 밤은 겉데기를 벗기고 세 네 조각정도로 썰어 놓는다. 간을 하고 모든 재료를 한데 버무려 한 입 크기로 동글납작하게 뭉쳐 찜기에 20분 정도 찌낸다. 심어만 놓으면 무력무력 잘 자라 캐는 재미, 다양하게 먹는 재미가 쏠쏠한 감자. 자연에서 오는 건강한 식재료가 주는 영양과 행복은 한계가 없다. 즐겁게 만들어 한 입 속 나뉘 먹는 재미 있는 여름, 감자몽생이 만들기 도전!

<재료>

감자 4개, 찻국(완두콩, 울타리콩, 강낭콩 등) 2t, 밤 4~5알, 대추 2개, 잣 1t, 천일염 ½, 원당 2t, 참기름 1t, 물 약간

<만드는 법>

- 1 감자는 껍질을 까서 강판에 갈고 베보자기에 넣어 국물을 짜낸다. 감자 물에 가라앉은 전분을 건져 건더기와 섞는다.
- 2 밤은 세 네 조각정도 내어 썰고 대추는 씨를 빼낸 후 돌돌 말아 썬다.
- 3 찻국은 씻어서 물기를 뺀다. 말린 콩은 하루 전날 불려 10분 정도 삶는다.
- 4 감자와 찻국에 소금과 원당을 넣어 간을 한 후 모든 재료를 섞어 동글납작하게 뭉쳐 모양을 만든다.
- 5 김 오븐 찜기에 올려 20분 정도 찌낸다.
- 6 달라붙지 않도록 물에 참기름을 타서 묻힌 후 그릇에 담아낸다.



김사경(사부작)의 '꽃, 씨' 요리 이야기

더운 여름 아이들과 함께 자연속으로 풍덩! 불암산 유아숲체험장은 재밌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여름 휴가철이 돌아오고 있다. 코로나19로 멀리 가기도 그렇고 아이와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한나절 놀 수 있는 좋은 곳이 있다고 하여 길을 나섰다. 찾은 곳은 불



암산 힐링타운에 새 단장한 유아숲체험장.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고 교감할 수 있도록 조성한 관내 총 4개소의 숲 놀이터 중 하나다. 나비 정원과 철쭉동산을 오르고 전망대로 가는 사거리를 직진하여 산림치유센터를 지나자마자 체험장이 보였다. "우리가 놀았던 곳이 실개천이었어!" 초입의 안내 지도를 보며 돌아가는 것이 아쉬운 듯한 아이의 중얼거림에 이어서 들뜬 아이들의 높고 투명한 소리가 체험장에 가득히 울려왔다. 에벌레 놀이터, 원통 슬라이드, 그물 오르기, 미끄럼틀, 트리하우스에 매달리고 미끄러지며 기어오르면서도 무엇이 그리 좋은지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통나무 터널 통과하기, 인디언 집, 징검다리 건너기를 지나니 물놀이장을 방불케 하는 풍

경이 펼쳐졌다. 날이 더워 그런지 이번에 새로 설치했다는 실개천 주변이 최고의 인기 놀이터가 되고 있었다. 천병천병 물장구를 치거나 조심조심 물속을 걷기도 하고 잠자리채로 물을 옮기기도 하고 물총을 쏘대는 등 아이와 이를 지켜보는 어른들이 뒤섞인 즐거운 놀이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 너머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브라키오사우루스' 공룡 모양의 큼직한 놀이터가 있는데 나비와 잠자리 그림으로 마감한 바닥은 흥미와 안전을 더해주고 있었다. 놀이터를 지나면 와일드 가든과 쉼터. 실개천을 따라 조성한 쉼터는 부모들도 쉬며 노는 아이들을 지켜보기 좋도록 배치되어 있었다. 피크닉을 온 것처럼 가족들이 쉼

터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들을 보니 '진정 여기가 힐링타운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개천 상류에는 타잔 놀이와, 모래 놀이터가 있어 타잔이 된 듯 줄을 타고 아이들끼리 또는 부모와 함께 모래성을 쌓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모래 놀이터 위로는 그늘막 쉼터가 있어 뜨거운 햇빛을 피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그저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신선한 에너지를 충전한 듯 했다. 자연과 교감하며 천진하게 뛰노는 아이들이 주는 활력인가 보다. 재개장 이후 입소문을 통해 불암산 힐링타운의 가장 핫한 장소가 된 유아숲체험장. 내려오는 중에도 돛자리 등을 들고 아이와 함께 체험장으로 향하는 많은 가족들이 눈에 띄었다. 행복한 휴식과 밝고 맑은 아이들의 즐거운 비명이 메아리치는 불암산 힐링타운의 새 명소, 유아숲체험장에서 사계절 소소한 기쁨을 누리보자.

*불암산 유아숲체험장: 중계동 산95-4 (연중무휴, 무료 이용 ☎2116-0624)

불암산 유아숲체험장
 조원희 wony221994@naver.com